

2 0 1 4
WINTER
V o l . 3 7

자유 · 소통 · 행복으로

더 큰 내일을 열어나가는

원익인의 따뜻한 이야기

원익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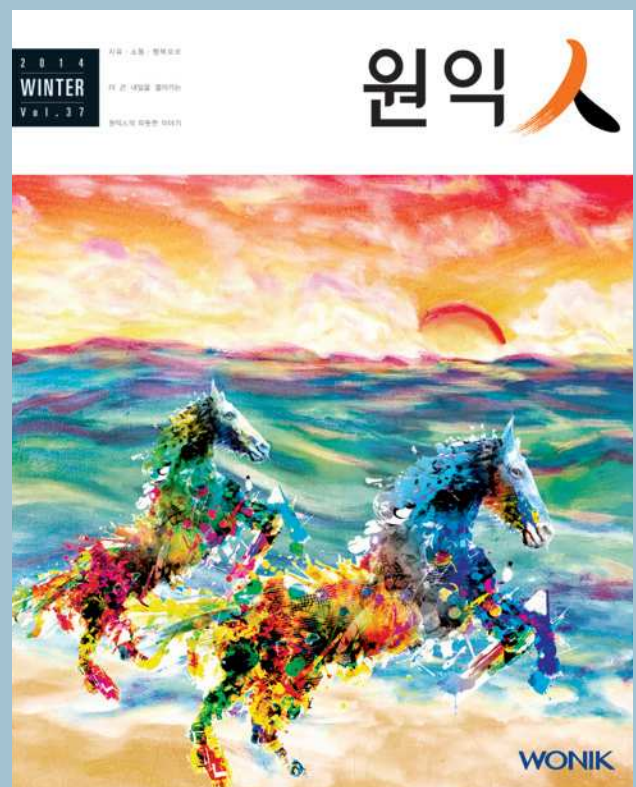


WONIK

自由
+
疏通
+
幸福

자 유 · 소 통 · 행 복 으 로 더 큰 내 일 을 열 어 가 는 원 익 人 의 따 뜻 한 이 야 기

COVERSTORY



04

Cover story

2014년
회장님 신년사

06

Cover story

2014년
대표이사 신년사

18

Wonik News

원익인 뉴스
원익가족소식

CONTENTS

COVER STORY



04 Cover story

2014년
회장님 신년사

06 Cover story

2014년
대표이사 신년사

18 Wonik News

원익인 뉴스
원익가족소식

자유 내일을 향한

원익인의
열린사고와 자유로운 도전은
더 큰 내일을 열어갑니다.



28 Special Edition

2013년
원익 송년음악회

32 Special Edition

2014년
원익 시무식

38 Discovery of Baduk

국가대표 상비군 체제
출범 및 운영

함께하는 소통

원익사의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나눈
더 큰 우리를 키워갑니다.



가슴벅찬 행복

원익사의
자부심으로 즐거운 일터에서
더 큰 성취와 보람을 만들어갑니다.



L I F E S T O R Y



42 Never Ending Challenge

선진기업사례
넷앱(NetApp)

46 Wonik Business

신원종합개발(주)
'경주 신원아침도시' 성공적 분양

47 Talk Box

2014년
새해소망 새해계획

56 Zoom in

(주)원익_문화체험동호회
'원익 좋은 영화 감상회'

60 Zoom in

(주)원익큐브 농구동호회
'스팀팩' (StimPack)

64 Musical

뮤지컬 '카르멘' 국내 초연

66 Exhibition

'점핑 위드 러브' 전

68 Economy

병행수입

70 Health

미세먼지 공포

謹
賀
新
年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2014년 갑오년(甲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을 되돌아 보면, 지난 한 해 우리에게 의미 있는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원익큐브와 씨엠에스랩이 원익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고, 원익 창업 이래 지난 30여 년 동안 꿈과 애환을 함께 했던 강남을 떠나 새로운 Digital 시대의 중심이 될 판교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였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2014년 우리 원익은 새로운 30년의 꿈과 신화를 이루기 위한 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최근 우리 기업들이 오랫동안 호황을 누렸던 IT제조업과 자동차, 조선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발 빠른 혁신과 중국 기업들의 속도감 있는 추격에 의해 대기업도 미래를 확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결국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원익의 희망찬 미래를 향해 우리 모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전략 경영', '인재 경영' 및 '시스템 경영'이라는 3가지 경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략 경영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경영환경

및 시장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는 적절한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비즈니스 경험과 성과도 무시할 수 없는 자산이기는 하지만, 결코 그 한계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어제, 오늘의 전략이 내일의 시장에서 통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내일을 예측하기 힘든 시장 환경이지만, 시장과 고객의 변화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올바른 전략을 세우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둘째,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재 경영은 필수적 요소입니다. 우리 원익의 자산은 지난 30여 년 간 원익을 건전하게 일구어 온 임직원 여러분이며, 이제는 여러분의 역량이 글로벌 수준에 결코 뒤지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날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선 삼성은 1990년대 초부터 인재경영을 추진해 왔고, 삼성의 성공 신화는 바로 인재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결과임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원익도 인재투자에 소홀하지는 않았으나,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모든 경영진은 직원들의 성과에 대해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내부 인재 육성 및 우수 인재 영입에도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합니다.

셋째, 시스템 경영입니다.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기업은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합리적이고 스마트한 의

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 · 마케팅, 구매 · 재고 · 채권관리, 회계 · 재무, 인사, 리스크관리 등 모든 업무에 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능가하는 표준화된 매뉴얼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본 경영이념인 신뢰, 공정, 투명의 가치를 담아 내야 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새로운 30년을 위한 우리의 도전은 임직원 모두가 행복한 회사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 소통, 행복의 기업문화는 기업의 생존과 미래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틀이며 기본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작은 성취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쿼텀 점프를 위한 창의와 열정을 마음껏 발휘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창의와 열정이 살아 있는 기업에게는 항상 새로운 기회와 미래가 펼쳐질 것임을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에도 원익 가족 모두의 가정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원익 / 이재현

謹
賀
新
年

먼저, (주)원익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이 자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를 드리며, 오늘 저는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기쁨을 잠시 뒤로
하고 막중한 책임감에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게 됩니다.

(주)원익 가족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 창업의 터전을 닦은 이래 우리 (주)원
익은 숱한 시련과 모험을 극복하면서 내실 있는 우량기업으로
성장하였고 특히, 메디컬 및 산업재 유통 전문업체로 뚜렷한
업적과 발자취를 만들어 왔습니다.

불모의 터전에서 지속적 성장을 이룩한 선배 경영인들의 헌신
적인 업적을 가슴 속 깊이 되새기면서 우리 회사의 새로운 발
전과 도약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야 하겠다는 큰 다짐을 하
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선배 경영인 여러분들께 감사
와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주)원익 가족 여러분!

지금 국내외적으로 모든 기업들은 수많은 도전과 변화에 직면
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경쟁이라는 고통으로부터 숨
어 지낼 수 있는 기업은 있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쟁과
전면전을 치르다 지친 기업은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져야만 하
는, 뼈저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오늘 날의 냉엄한 현실
임을 직시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고 위
기를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창의적인 지
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끊임없는
자기 개선과 경영혁신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주변의 환경과
고객이 요구하는 변화를 신속 정확하게 예측해야 할 뿐만 아니
라 경쟁자들의 핵심전략을 파악하고 기업 내에 존재하고 있는
불합리한 업무들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저는 우리 회사의 경영혁신을 통한 힘찬 제 2의 도약이라는 사
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저의 소신을 밝
히하고자 합니다.

(주)원익은 “신뢰/공정/투명”인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원칙과 기
본에 충실하면서 내실을 다져왔고 이는 미래의 초우량 기업으
로 지속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경영이념
을 근간으로 건강한 경영체계를 이룰 것이며, 동시에 원익의 핵
심가치인 “자유/소통/행복”을 중심으로 ‘행복경영’과 ‘창의경
영’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임직원이 풍요롭고 행복한 세상에
대한 꿈을 목표로 정진할 수 있도록 모두의 기쁨과 만족을 주
는 ‘행복경영’을 최우선으로 실천할 계획입니다. 저는 평소,
종업원의 만족 없이는 고객의 만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객이야말로 우리의 존재근거임을 확실하게 인식하지 않는
한 고객만족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임직원과 고객 그리고 기업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회사를
경영해 나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직원과 경영자가 서로의 마음을 열
고 섬김의 자세로 협력해 나가는 주인의식을 갖는다면 구성원
모두의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행복경영'의 실천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의 정착이 필수적인 바 '창의 경영'을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창의력이야말로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 믿고 있으며, 구성원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되기 위해서는 조직문화의 변화가 필수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후하지만 단단한 기반을 가진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개인이 가진 창의력을 십분 발휘하기 위해서는 수평적인 기업 문화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편견과 마음의 벽을 허물고 다양성과 서로의 가치를 진정으로 인정해 주는 소통문화로 정착될 때 구성원의 창의성은 무한 발휘될 것이며 우리는 창의적인 기업으로 변신하여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주)원익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오

늘의 출발은 저 개인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격언처럼 우리의 뜻과 목표는 숭고합니다. 우리가 세운 뜻을 향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성실과 정직을 실천하는 깨끗한 마음과 미래를 개척하는 강한 열정으로 정진해 나아간다면 [행복한 세상]은 우리에게 펼쳐지리라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믿음 안에서 하나되어 '행복경영', '창의경영'의 실천을 통해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한 세상에 대한 우리 회사의 꿈을 이루어 나갑시다. 저 또한 열과 성을 다해 섬김의 자세로 우리 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대표이사로서 주어진 책무 또한 충실히 이행해 나아갈 것 입니다.

끝으로, 부족한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갑오년(甲午年) 새해를 맞이하여 萬福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원익 QnC / 박 근 원



사랑하는 원익 가족 여러분!

"2014년 갑오년이 희망을 가득 담고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에도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한 웃음이 넘치고 가족분들 모두 언제나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3년은 판교의 새 사옥으로 이주하면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마음 뿌듯하고 자부심 가득 채운 해라 여느 때와는 다른 특별한 의미의 변화를 가졌던 한 해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특히 기존의 한계적 사고를 넘어서는 감각을 갖고 태어난 새로운 보금자리는 우리들 모두에게 폭넓은 사고의 혁신을 추구하도록 새로운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조성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말의 해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들어도 갈기를 날리며 힘찬 질주를 하는 역동성

을 지닌 모습을 자연스럽게 연상시키는 친근감 있는 동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4년은 우리 모두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미래와 행복을 가꾸어가며 말처럼 역동적이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내달리는 건실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원익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2014년에도 또 다른 의미있는 멋진 한 해를 만들어봅시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Happy New Year!!!

(주)원익IPS / 변 정 우



친애 하는 임직원 여러분!
2014년 갑오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청마의 해”로 파란색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해입니다. 우리 회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청사진을 펼쳐 나갈 기운을 받는 한 해가 되고자 합니다.

지난 해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예상하고 연초부터 위기 경영을 적용하였습니다.

모든 임직원의 갖은 노력을 통해 작년 말 우리는 예상 밖의 따뜻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말로만 “하면된다.”가 아닌 실천으로 “하면된다.”를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경험을 잊지 말고 2014년 한 해에도 자신감을 갖고 다함께 같은 길을 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열정과 역량을 집중하여, 2014년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경영방침과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영방침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첫째, 고객 감동 실현으로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미리 간파하고 준비함으로써 언제든 필요로 할 때 그 필요한 것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고객과 우리는 비즈니스 관계이며, 비즈니스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업무관계에서의 신뢰입니다.

고객은 물론 우리회사의 존재 이유도 이윤창출, 극대화이며 이것은 우리의 기술과 역량이 집약된 우리의 설비를 통해서만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변화와 도전을 통해서 미래의 성장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원가절감, 재고관리, 품질개선, 관리혁신 등의 활동으로 조직의 체질강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향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만의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지 못한다면 정체되거나 퇴보될 수 밖에 없는 경쟁시대에 서 있습니다. 현재에는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Top 10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해외 Site 조기 안정화로 해외사업 기반을 확립해야 합니다.

회사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해외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고, 작은 결실을 거두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장비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고수하고 있지만 더 넓은 해외 무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우리 스스로가 기회를 만들 수 있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넷째, Our Credo 실천을 통한 주도적인 기업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회사가 통합이 된 지 벌써 3년이 지나갑니다. 소통과 화합을 내세워 새롭고 통일된 기업문화를 형성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노력으로 우리는 실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회사에 적합한 비전과 Credo를 만들었고, 이를 계기로 이제는 경쟁력 있는 기업문화를 찾아야 할 시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견기업을 넘어서 글로벌 기업으로 가기 위한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기 위해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직을 이끌어 가는 리더께서는 진정한 leader ship을 발휘하여 부하직원의 역량을 끌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과와 성공에는 작지만 제 역할을 해 준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을 진정으로 소중하게 느낄 줄 알아야 상호간 믿음을 쌓을 수 있으며 부하직원의 follow ship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강한 결속력은 강한 조직을 만들며, 강한 회사를 만들어 줍니다. 가장 밑바탕에는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는 부하직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조직이 추구해야 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R&D, 영업, 마케팅, CS, 제조, 품질, 개발, 관리분야에서 제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은 바로 “실행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환경이 바뀌고, 고객의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가 커지면서 우리는 본연의 業을 더욱 더 확고히 하면서 새로운 業을 찾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조직은 상호 균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더욱 더 존중해 주어야 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라며, 상호간 공감도 충분히 나누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올해 계획하고 있는 일련의 과제들이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완료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최상의 성과를 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었다고 하여 예측하고 바랬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결과보다는 그런 험겨운 과정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쓴 좌절과 달콤한 성공은 단순히 최종 성과만으로 기름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책임감 있는 최선을 다할 때만이 어떤 결과든

긍정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14년은 우리에게 더 높은 도약을 위한 발판의 해가 될 것입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

틀에 박힌 생각, 행동으로 우리는 우리의 업무를 대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18번의 도전 끝에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라

이트형제는 805번의 도전 끝에 비행 성공을 했으며, 에디슨은 수천 번 이상의 도전 끝에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실패란 “더 이상 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며, 각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원익머트리얼즈 / 이 건 총



2014年 甲午年 靑馬 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 모두 회사가 추구하는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며 한마음으로 나아가는 이상동몽(異床

同夢)의 한 해였고,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새해에도 협력을 통하여 꿈과 목표를 공유하며 행복을 느끼는 즐거운 일터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는 나보다 힘이 세다. 성공적인 협력은 집단의 가장 재능 있는 사람이 혼자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을 때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잠재적 능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부딪혀야 불 타오른다.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창조적입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 하실 때 “신의 형상”으로 창조 하셨습니다. 신의 형상 중 하나인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로 말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 소중한 능력을 꽃 피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협력을 할 경우, 전혀 새로운 것을 창조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공이 많아야 산도 오를 수 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사공이 많아야 배가 산도 오를 수 있다”가 됩니다. 개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

하며 협력을 하면, 배가 산도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함께 일하라, 혼자서는 결코 축배를 들 수 없다. 누가 하느냐 보다 누구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한다면, 그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이든 “우리”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의 근간은 소통이며, 소통은 “나”가 아닌 “우리”입니다.

올해, 우리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소통으로 협력하며 재미있게 일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새해 “나”가 아닌 “우리”의 소통과 협력으로 멋진 한 해를 만들어 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원익투자파트너스㈜ / 이 용 성



친애 하는 임직원 여러분!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임직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회사의 경영환경은 그다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경기측면에서 보면 전반적인 세계경제는 다소나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경제는 그

간 성장동력이었던 IT 및 자동차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내수도 부진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좀처럼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시장 내적으로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과 성장동력 상실 우려, 부실 기업의 유동성 문제 등으로 자금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주식시장도 모멘텀 부재로 침체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금수요자 중심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벤처투자나 PEF투자 환경도 결코 낙관치 않을 것입니다.

올해에 예상되는 이러한 경영환경은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기를 충분히 예측하고 철저히 대응방안을 수립한다면 위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임직원 여러분이 다가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재도약을 위한 각오를 다져주기 바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최적화된 투자전략의 수립입니다.

비록 우리회사가 업계 상위권의 회사로 평가를 받고 있으나, 그간 투자회사로서 제대로 된 투자전략을 수립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남들이 하는대로 또는 단기적인 시류에 편승하는 투자전략으로는 결코 업계 최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 존립 자체를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존의 성숙산업과 차세대 성장산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투자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임직원의 전문성 강화입니다.

투자회사로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전문성입니다. 지금 처럼 자금 초과 공급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전문성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회사 임직원 개개인이 모두 자질이 우수하고 풍부한 투자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하여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T자형 인간”이 우리의 좋은 롤 모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셋째, 선제적 리스크관리입니다.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는 선제적으로 관리되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사후적인 리스크관리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그 실효성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어렵고 뚜렷한 성장동력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넷째, 창의와 열정의 기업문화 구축입니다.

기업문화는 회사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기초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회사는 자유,소통,행복이라는 원익의 핵심가치를 이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올해에는 이를 바탕으로 창의와 열정이 살아숨쉬는 기업문화를 구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주변여건이 어렵다고 위축되어서는 안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살리는 방안을 만들고 우리 모두가 기본에 충실한다면 현재의 위기는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 임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기업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우리회사를 좋은 회사로 만들어 나갑시다.

다시 한번 임직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원익큐브 / 오 영 신



친애하는 원익큐브 임직원 여러분!

작년 한 해는 원익큐브에게 험난한 시련으로 시작하여 많은 고통과 진통을 극복하고 마침내는 원익의 계열사로 정착이 되는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많은 혼돈과 갈등이 있었던 시기였겠지만 신뢰를 가지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해결해 나아가고자 하였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 일년 동안 많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온 임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원익의 가족으로 재탄생한 우리는 안정 속에 성장을 이루기 위해 남다른 각오로, 희망과 창조의 새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오늘 새해 시무식을 맞이하여 임직원 여러분 모두에

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새로운 도약을 위한 조직문화의 변신을 추구해 나가도록 합시다.

주지해온 바와 같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적자원인 우리 회사는 각 구성원의 발전과 성장이 회사의 성장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만족할 수준이 아닌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 임직원이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필요한 능력을 배양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도록 합시다. 사내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을 실천하고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때 더 나은 회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둘째, 각 사업부별로 차별화 되고 경쟁력 있는 마케팅 전략에 대한 숙고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겠습니다.

사업부별로 ITEM및 CUSTOMER가 전부 다르지만 각 사업부에서는 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달성과 수익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야만 하겠습니다.

수익 창출은 기업 생존의 필수 조건으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명제일 것입니다.

모든 계획은 수익성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어 자원과 역량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경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우리 회사는 인적, 물적 자원과 경영 노하우 등

경쟁우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잠재력을 일깨워 줄 수 있는 모멘텀, 즉 어떠한 촉발적 계기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목표 달성과 수익 창출을 달성함으로써 자신감을 회복하여 액티브하게 움직일 수 있고 신규 투자가 활성화 되는 선순환의 구조를 이루는 역동적인 경영 시스템을 구축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조직 내부에서 우리들의 노력으로 실마리를 찾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차별화 된 핵심 역량을 배양하고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켜, 지식 정보와 인재 중심으로 기업의 연속성을 추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의 강도는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변신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체질을 강화시키지 못하면 도태 될 수 밖에 없는 냉엄한 현실을 인지하고 자기 계발을 통해 회사와 더불어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희망 찬 새해를 맞이하여 임직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만복이 충만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하며 이만 신년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종합개발(주) / 박 영 일



임직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려운 시장환경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연속 영업이익과 세전이익을 달성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11월말에 분양한 '경주신원아침도시'는 1월 13일까지 100% 분양으로 우리에게 큰 자신감과 '하면된다'는 결코 평범하지만은 않은 진리를 깨우쳐 주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지난 몇 년간 어려움을 겪었던 주택시장이 올해는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회복론에 서서히 힘이 실리고 있고, 상반기에 부동산시장이 바닥을 찍고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는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부동산전문가들도 늘어나는 등 시장의 전망이 일부 긍정적이기도 합니다. 물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금리인상 가능성과 경기회복 여부 등 경제해야 할 시장변수 또한 만만치는 않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우리회사는 경우에 따라 그 결과가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상황상 올해의 경영방침을 '극한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속생존 및 성장기초 구축'으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 최적화된 맞춤형 틈새시장 발굴과 부동산금융 능력배양으로 주택 Value Chain확장을 통해 부동산 개발관리 전문회사'로서 정착과, 4S사업(Small, Smart, Special, Saleing) 발굴을 통해 '수익률 안정화', 마지막으로 지난 한해 많은 아쉬움과 반성이 필요했던 갈등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본다는 역지사지의 '소통의 기업문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원들의 목소리와 창의성 발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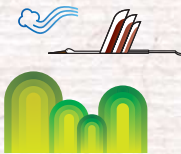
이를 위해서는 전사적으로는 국내외 건설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고, 개개인은 이에 요구되는 역량을 극대화 해 나가는데 조금도 모자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후퇴없는 열정과 가식없는 소통이 요구되는 한 해입니다.

2014년, 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위닉스 / 장 홍 식



존경하는 임직원 가족 여러분! 2014년을 시작하는
갑오년(甲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도 지속적인 효율경영을 위한 공정개선 및 업무개선, 조직변경 등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하여 적지만 전년 대비 매출 8% 성장과 목표 대비 이익 112% 달성하여 우리도 노력하면 성장 발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해오신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수출 비중이 77%인 우리 회사는 환율이 가장 민감한 변수입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출구전략과 무역수지 증가로 환율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임금 인상과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의한 경비 증가 등으로 지난해 보다 경영환경은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

상됩니다.

임직원 여러분!

올해 우리가 직면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위기의식입니다.

우리가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이 위기라는 인식을 가지고, 새로운 업체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여 매출을 증가 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고객은 품질과 가격 및 납기준수로 고객을 만족시켜 신뢰를 쌓고, 그 신뢰가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선 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다음은, 변화해야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예전의 사고와 행동으로 는 시대에 낙오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유연한 사고와 현재 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 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카멜레온이 주위의 환경에 따라 바로 변화가 되듯이 우리도 변화하는 환경에 즉각 대응을 할 수 있어야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위닉스 가족 여러분!

올해는 60년 만에 찾아온 청마의 해입니다. 청마의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기상처럼 위닉스 임직원 모두가 활기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임직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익엘앤디(주) / 이 재 천



원익가족 여러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3년은 저희 원익엘앤디(주)로서는 아주 의미있는 한 해였습니다.

골프장업계의 하향화 여건 속에서도 내장객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50% 증가했고, 매출도 적지않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대고객 서비스 뿐만아니라 양질의 코스를 제공하여 영동지역 최고의 퍼브릭골프장과 리조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원익엘앤디(주) 모든 직원들의 희생과 노력의 산물이며, 특히 원익가족 모두가 우리 메이플비치를 사랑해 주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4년 새해는 원익엘앤디(주)로서는 수익을 내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매출도 20%이상 신장시키고, 서비스도 더 크게 개선함은 물론, 사업구조를 미래비전에 맞게 과감히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만성적인 부실구조를 이익이 나는 구조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 소통 행복이라는 그룹의 기업가치가 발휘되어 일 할 만나는 행복한 직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고객과 역지사지(易地思之)하겠습니다. 기업의 모든 가치를 고객을 중심으로 다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조직내 팀원간 팀간 임직원간에도 서로서로 易地思之해야 합니다. 역지사지야 말로 소통의 기본입니다.

또한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에 앞장 설 것입니다.

변화하는 경영여건에 항상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고객에게 감동있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내 놓겠습니다.

무사안일한 기존의 문화, 패턴,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깨부수겠습니다.

혁신의 아이콘이 되기 위해서는 원익의 기업가치인 자유로운 영혼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사상과 영혼이야 말로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원천입니다.

이렇게하여 원익엘앤디 메이플비치를 일 할 만 나는 행복한 직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우리 원익가족들의 '휴식의 공간' '힐링의 공간' '행복의 공간' 으로 만들겠습니다.

원익가족 여러분들의 더 큰 성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씨엠에스랩 / 조 용 래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활기찬 청말띠의 해, 갑오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4년 우리 씨엠에스랩의 임직원이 가지는 소망과 기대는 남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2014년은 기존 사업 부문에 있어 지속 가능한 성장의 첫걸음을 내딛는 동시에, 새로운 사업전략에 기반하여 신규사업을 본격 추진해야 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2013년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 커다란 변혁의 시기였습니다. 기존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체도를 개선하고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운 영업정책을 도입함과 아울러,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행히, 그 와중에서도 전문가 영입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전략을 모색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014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영환경이 그리 우호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씨엠에스랩은 그간 추진해 온 변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여, 조직, 영업 및 브랜드 분야에서 보다 강도 높은 혁신을 통해 명실상부한 마케팅 전문회사로 도약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내 영업분야에서는 새로운 영업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다양한 마케팅 정책의 도입을 통하여 성장 기반이 조기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해외 영업분야에서는 세계 40여 개국에 걸쳐 있는 network 를 더욱 확대함은 물론,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질적 전환을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상품개발, 디자인 등 마케팅 역량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신규 사업부문에서는 새로운 브랜드 전략을 수립하여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부문별 전략적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우리 씨엠에스랩은 브랜드 활성화, 제품 차별화 및 거래선 확대를 통해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임직원의 남다른 도전의식과 뜨거운 열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도전의식과 열정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구성원과 조직 간의 상호 소통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씨엠에스랩은 임직원 모두가 자유롭게 소통하며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는 건강한 기업문화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2014년은 우리 씨엠에스랩 성장의 첫걸음을 내딛는 한 해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기업 만들기 원년이 되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2014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로 우리 씨엠에스랩이 작지만 강한 기업, 행복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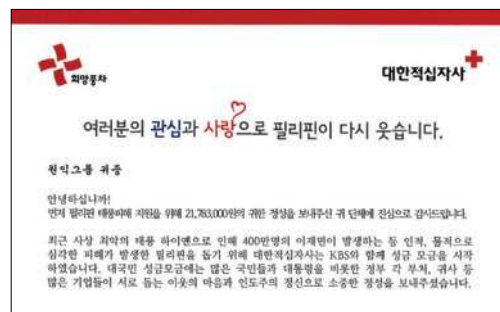
부디 2014년 새해에도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익

필리핀 태풍피해 구호 성금 모금 전달 21,783,000원

2013년 사상 최악의 태풍 하이옌으로 인해 40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인적, 물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필리핀을 돕기 위해 원익의 각 계열사 임직원이 한 마음으로 모금활동을 실시한 결과 총 21,783,000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모금 활동은



전 계열사가 적극 동참하였으며, 몇 년전 아이티 지진 피해 성금 모금활동과 마찬가지로 원익이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성장을 함께 한다는 뜻 깊은 행사였다. 향후에도 원익은 각 계열사의 사회 봉사 활동 참여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우 이웃 돕기 및 사회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후원을 계속 할 것이다.

(주)원익

유니세프 기부금 마련을 위한 자선 바자회

유니세프 기부금 마련을 위해 (주)원익은 매년 진행하는 자선바자회를 2013년에도 진행하였다. 12월 한 달 동안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류, 신발, 책, 생활용품 등 기부 물품들을 받아 판매하며 판매수익금은 전액 유니세프 기금으로 기부된다. 또한 사내동호회 기부금, 개인 기부금, 신사옥 1층에 마련된 유니세프 모금함 등을 통해 마련된 기부금도 1월 말 유니세프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4년 희망편지 이벤트'도 진행하였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각자의 희망을 담은 유리병 편지를 판교 신사옥 1층에 전시, 보관해주며 1년 후에 자신의 희망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이러한 희망편지 이벤트에도 모금함을 설치하여 유니세프 기부를 독려했다.



(주)원익큐엔씨

Wi-Pi 프로젝트 발대식 개최

(주)원익큐엔씨는 2030비전(소재부문 Clearly No.1) 달성을 위해 준비해 오고 있는 혁신활동의 일환으로 시스템 혁신을 위한 Wi-Pi(WonIk QnC Process Integration : (주)원익큐엔씨의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것)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전사(사내) 최적화된 물에 의해 운영과 프로세스가 계량적으로 측정/관리되는 단계인 3Level(강소기업 (상위5~20%) 수준) 도달을 목표로 하는 Wi-Pi프로젝트는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사 차원의 프로세스 혁신, 기간 시스템의 통합 및 내/외부와 협업체계 강화, ERP 기반의 내부 핵심 프로세스 재정립과 유관 시스템과의 유연한 연계를 통하여 PI 수행에 따른 개선 프로세스를 수용함으로써 정보시스템 통합 및 협업체계가 강화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주)원익큐엔씨 임직원은 단위 프로세스 최적화와 단위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사 통합하기 위해 전사 프로세스 혁신 및 기간시스템(ERP)중심의 단위 시스템 통합을 통해 해외 사업장과 시스템 통합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전하였다.



(주)원익큐엔씨

(주)원익큐엔씨 2013년 송년의 밤 개최

(주)원익큐엔씨는 지난 12월 19일 '2013년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18시부터 회사 인근 호텔 연회장장에서 1부 공식행사, 2부 만찬행사에 이어 3부 소통과 화합의 마당 및 다짐의 시간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1부 공식행사에서는 금년도 당사의 목표달성에 대한 자축의 의미로 케익컷팅 및 축

배의 잔을 함께 들었으며, 2부 만찬행사에서는 남유진 구미시장님이 방문하시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원익큐엔씨에 감사드린다”는 감사인사와 더불어 임직원 개개인에게 격려의 인사를 건네는 등 본 행사를 더욱 빛냈다. 이어 3부 행사에서는 대구경북지역 인기MC 한기웅의 진행하에 신인걸그룹 “비비드”와 80년대 후반 인기가수인 “도시의 아이들”의 축하공연으로 젊은 층에서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높은 호응과 즐거움을 보낼 수 있었다. 축하공연을 필두로 각 본부별 장기자랑으로 전 직원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이루어 질 수 있었으며 행운권 추첨을 통해 직원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이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 금번 송년의 밤 행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고생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사기진작을 통해 새로운 마음으로 신년을 활기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소통하며 화합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주)원익큐엔씨

(주)원익큐엔씨 사회 봉사단 『사랑의 연탄배달』 행사 시행



(주)원익큐엔씨 사회봉사단인 원익나눔회에서는 연말을 맞아 지난 12월 1일 지역 내 독거노인 및 불우가정에 연탄 배달과 동시에 사랑의 물품을 전달하였다. 나눔회 1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지역 내 자치단체 사회복지사의 추천을 받은 가구에 연탄을 직접 배달하고 쌀과 라면을 함께 전달하였다. 지금까지 봉사단에서는 사랑의 집고쳐주기, 농촌일손돕기, 헌혈릴레이, 김장나누기 등의 행사는 지

속적으로 활동해 왔으나, 금번 연탄배달은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이다 보니 잔잔한 어려움이 소소히 있었지만 지역내 소외된 이웃에게 한 장 한 장 정성과 희망의 마음을 담아 1200장의 연탄을 전달함으로써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형길 나눔회장은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불처럼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번 연탄배달 행사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원익아이피에스

2013년 신규입사자 역량강화교육

2013. 11. 20 날씨가 제법 쌀쌀해질 무렵 2013년 (주)원익아이피에스에 입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2박 3일 집합교육이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현대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에 진행된 1차 Basic교육에 이은 2차 역량강화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30명의 사원이 참석하였다.



입사 후 기억에 남는 일화를 역할극으로 재구성한 <Drama in 원익IPS>, 참신한 아이디어와 체력이 겸비되어야 해결할 수 있는 미션해결시간 <트레져헌터스>, 모든 조원이 하나의 종(Bell)을 들고 연주를 했던 <도전! 하모니 벨을 울려라> 시간 등 교육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부품개발팀 이호재 사원은 “수시입사자라 동기가 없어서 그동안 적적하기도 하였는데, 동기가 생겨 더 이상 외롭지 않다. 각 사업부별 친해진 사람들이 많아서 각종 정보교류에 앞으로 유용할 것 같다” 교육소감을 밝혔고, 고객지원팀 강정석 사원은 “팀 미션을 하며 동기들과의 화합과 협력 시간을 갖을 수 있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원익의 3강 인재로 더 성장한 것 같다” 며 즐거워 했다. 구매팀 김수빈 사원도 “다양한 강의와 프로그램을 통해 입사후의 나를 되돌아보고 신입으로서 성장해 나아갈 목표를 세울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동료들과 함께 소통하고 단합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교육소감을 털어냈다. 이번 교육을 통해 2013년에 수시로 입사한 직원들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동기가 만들어졌기를 기대해 본다.

(주)원익아이피에스

(주)원익아이피에스 송년회 밤



2013년이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저녁.
(주)원익아이피에스 생산기술센터가 송년회를 아주 재미있게 준비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인사팀에서 방문했다.
〈응답하라 2013, 임직원이 함께하는 Happy Time〉이란 주제로 테마를 잡고 부품개발팀 조규태과장의 진행하에 진행

된 이번 행사는 사전 인터뷰,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면밀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 임직원들의 기대를 증폭시켰다.

행사는 생산기술센터장인 서태욱 부사장님께 직원들이 질문을 하면 부사장님이 답변하는 시간으로 시작됐다. 부사장님의 센스있는 답변으로 박수갈채와 웃음꽃이 넘실됐고, 사전 설문조사 결과 생산기술센터 직원들이 부사장님께 전하고 싶은 말 2위가 “부사장님 사랑해요~”로 나왔고 부사장님도 “사랑한다”는 답해주시면서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우리팀에서 가장 000한 사람을 뽑는 시간에는 주제에 걸맞는 센스있는 상품을 주며 폭소를 자아냈다.
〈ex 가장 느긋한 사람 = 치즈, 술 많이 마시는사람 = 컨디션, 친해지고싶은사람 = 초코파이(情)〉

특히, 바디랭귀지로 단어를 표현하고 맞추는 [몸으로 말해요] 시간에는 부장님들도 몸소 망가지면서 즐거운 분위기가 계속됐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조규태 과장은 “처음 해보는 거라 많이 긴장되고 실수도 있었지만 임직원들의 열화와 같은 호응과 협조 덕분에 모두의 기억 속에 남을 즐거운 추억 한 가지가 생기게 된 것 같아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

생산기술센터의 다음 행사도 무척 기대가 된다.

(주)원익머트리얼즈

2013년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최우수 기업 선정

(주)원익머트리얼즈는 삼성디스플레이와의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용기운영 수량 최적화, 원료 Loss 절감, 정제공정 개선을 생산성 혁신을 위한 과제로 선정하여 지난 1년간 전사가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아 삼성디스플레이 컨소시엄의 대표로 선정되었다.

이후 12월 4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실시된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경진대회에서 12개 컨소시엄의 우수업체들과의 경쟁을 통해 (주)원익머트리얼즈는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동반성장

위원회가 12월 17일 오후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개최한 ‘2013년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성과보고회’에서 산업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2013년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성과보고회’에는 대기업, 중견기업, 협력중소기업, 기술경영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주)원익머트리얼즈는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어 사례발표를 통해 생산성 혁신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은 대기업이 핵심 파트너로 육성할 1·2·3차 협력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제조현장·경영혁신 지원, 생산기술 향상 지원, 생산성혁신 교육 등 기업별 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원익머트리얼즈

초고순도 암모니아 첫 출하



(주)원익머트리얼즈는 지난 10월 30일 원익머트리얼즈 오창 본사 공장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초고순도 암모니아 제품 출하식을 가졌다. 첫 출하된 제품은 N2O 공장 증설 후 약 1개월간의 시운전 후에 얻어진 값진 결과물이며, 기존의 흡착방식을 탈피하고 새롭게 도입한 증류방식으로 얻어 낸 초고순도 암모니아로 (주)원익머트리얼즈에 주는 의미가 매우 크다.

이건중 대표이사는 “짧은 시간 내에 좋은 품질의 암모니아가 생산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그동안 애써 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는 격려와 함께 “이번에 출하된 초고순도 암모니아는 원익머트리얼즈의 도전, 열정, 창의를 정신의 결과물로 앞으로도 도전, 열정, 창의 정신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해 줄 것”과 “고품질의 암모니아를 안전하게 고객에게 운송할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주)원익머트리얼즈

한국수출입은행의 '히든챔피언' 선정

한국수출입은행이 주관하는 '히든챔피언 육성 대상 30개 기업'에 (주)원익머트리얼즈가 선정됐다. 히든챔피언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 CEO 역량, 재무건전성 등을 점수로 매겨 높은 점수를 얻은 중소·중견 기업을 선정해 맞춤형 마스터플랜을 제공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대상 기업은 수출 3억 달러 이상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이거나, 매출 1조원 이상이고 수출 비중 50% 이상인 글로벌 중견기업이다. (주)원익머트리얼즈는 앞으로 한국수출입 은행으로부터 수출입 업무 및 국외 투자 등 해외진출 활동에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고, 인재채용과 국제계약 법률자문, 수입자 신용조사, 환위험 컨설팅 등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까지 제공 받게 된다.

(주)원익머트리얼즈

하모니 클라이밍 개최

(주)원익머트리얼즈는 지난 11월 8일 과산 칠보산에서 '하모니 클라이밍(등반대회)'을 개최했다. 절막에서 출발해 정상에 도착, 땀바위로 하산하는 4시간의 산행 동안 직원들은 다양한 가을 단풍 풍경을 배경으로 함께 사진을 찍고, 서로를 격려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무실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번 행사에서 이건중 대표는 "모두가 무사히 등반을 마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모습이야말로 원익머트리얼즈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라며 "계속해서 새롭고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종합개발(주)

조직문화 개선교육 '나를 넘어서 Big Step' 실시



(주)신원종합개발은 자유, 소통, 행복을 기반으로 한 핵심가치 실현과 사내 조직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나를 넘어서 Big Step' 교육을 변화디자이너 허일무 강사를 초빙하여 총 3단계에 걸쳐 실시중에 있다. 2013년 12월 17일과 1단계, 2014년 1월 21일 2단계 과정을 마친 이 교육은 2014년 2월 마지막 3단계를 앞두고 있다.

'Big Step' 교육은

1단계 : 상자밖으로 나오기(자기변화와 혁신)

2단계 : 커뮤니케이션 스킬(본질, 프로세스, 전화응대 외)

3단계 : 긍정과 자부의 조직문화 구축(AI 기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교육의 내재화를 위해 1단계 과정에서 소개된 '상자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도서를 선정하여 부문별로 독서토론회를 실시하였고, 자기변화와 혁신을 통해 진정한 소통과 창조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보는 유의미한 자리가 되었다.

(주)원익큐브

실리콘 공장 이전

12월 12일 (주)원익큐브 실리콘 공장이 천안에서 진천으로 이전하였다. 진천 공장으로의 이전을 통해 실리콘 사업부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으며, 1월초까지 이전 작업을 마무리하고 시생산을 거쳐 1월 9일 상업 생산을 앞두고 있다.

(주)원익큐브

임직원 산행



2013년 12월 7일 (주)원익큐브 본사 및 반포지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계산 산행이 진행되었다. 미세먼지가 극심할 것이라는 예보가 무색하게 다행히 맑게 개인 하늘이 우리들을 맞이하여 주었다. 삼삼오오 각지에서 모여든 우리 임직원들은 윈터골을 시작으로 깔딱고개에서 매봉에 이르기까지 왕복 3시간에 걸친 산행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씩씩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드디어 힘들게 정상에 올라 서로를 격려하며 막걸리 한잔에 목을 축이자 우리 모두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해냈다는 성취감을 동시에 느끼며, 저물어가는 2013년도를 마무리하고 2014년도를 새롭게 준비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주)원익큐브

(주)원익큐브 임직원 성금



오영신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원익큐브 임직원들은 연말 연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고 나눔의 기쁨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1,000만원을 기탁하였다. 임직원들의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모으고, 회사의 기부금을 더한 금액으로 MBC 문화방송을 통해 12월 27일 뉴스데스크에 방송되었다.

자 유 · 소 통 · 행 복 으 로
더 큰 내 일 을 열 어 가 는
원 익 사 의 따 뜻 한 이 야 기

SECTION 01 | 自由

28 **Special Edition**
2013년
원익 송년음악회



32 **Special Edition**
2014년
원익 시무식



38 **Discovery of Baduk**
국가대표 상비군 체제
출범 및 운영



자유
내일을 향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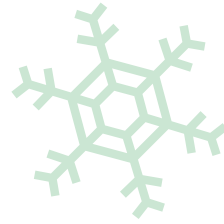
원익사의
열린사고와 자유로운 도전은
더 큰 내일을 열어갑니다.



‘반짝반짝’ 빛난 ‘원익 송년음악회’
따뜻한 음악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 하다~♪



자유, 소통, 행복을 핵심가치로 삼고 달려온
원익의 2013년 마지막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반짝 빛났다.
딱딱한 분위기의 종무식 행사가 아닌,
부드럽고 따뜻한 ‘송년음악회’로 진행되었기 때문.
지난 12월27일 열린 종무식 겸 ‘원익 송년음악회’는
아름다운 음악이 있었기에 더욱 따뜻하고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다사다난했던 2013년을 되돌아보다

원익은 지난 12월27일 오후 4시 판교 원익빌딩 1층 로비에서 ‘원익 송년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원익 송년음악회’는 원익빌딩에 입주한 전 임직원들을 비롯해 계열사 사장단 및 가족을 초청, 2013년 한 해를 되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개최된 ‘원익 송년음악회’는 보다 자유롭고 부드러운 분위기의 중무식을 겸한 행사로, 음악회에 앞서 원익빌딩 1층 로비에는 각종 음료와 와인, 핑거푸드 등 케이터링 서비스가 준비돼 연말 파티 분위기를 물씬 풍겼다. 이 자리에서 원익 임직원 및 계열사 사장단과 가족들

은 2013년을 마무리하는 자리인만큼, 서로를 격려하며 덕담을 주고받는 등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본격적인 행사는 ‘2013년 원익 주요 이벤트 동영상 시청’으로 시작됐다. 2013년 원익은 (주)원익큐브와 (주)씨엠에스랩을 새로운 가족으로 맞았고, 판교 원익빌딩 준공에 따라 계열사가 한 데 모여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발판을 마련했다. 새로운 변화의 다짐을 한 2013년 시무식과 전 계열사 임원진들의 청계산 산행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은 원익은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산업 전시회 ‘세미콘 코리아’와 ‘i-sedex’ 국제반도체대전 등을 통해 기술력을 뽐냈고, 터치스크린 sputter 장치 개발 및 MAHA-MP 해외진출(원익IPS)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성장과 더불어 원익은 계열사 자체적으로 꾸준한 동호회 활동과 봉사활동으로 직원들 간의 소통은 물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힘써왔다. 특히 지난 가을, 원익 창립 32주년을 맞아 진행된 ‘원





익 가족 힐링 나들이'는 원익 임직원과 가족을 모두 초청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음악으로 서로를 격려한 자리, 훈훈한 마무리로 감동 더 해

이날 '원익 송년음악회'는 '테시투라(Tessitura)' 앙상블 팀의 클래식 공연으로 꾸며졌다. '테시투라'는 악기 및 사람이 소리낼 수 있는 음역, 음색을 뜻하는 이탈리아어로, 실력 있는 연주자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음색이 어우러지는 앙상블 팀.

먼저, 금관 5중주(트럼펫 Trumpet- 김현호, 백향민, 호른 Horn-강승진, 트럼본 Trombone-이우석, 튜바 Tuba-정보민)가 무대에 올라 '왕궁의 불꽃놀이', 'Tie a Yellow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 '사랑은' 등의 곡을 선보였으며, 뒤이어 소프라노(Soprano) 전영선이 'Nella Fantasia'를 부르며 한 층 분위기를 달궜다. 또 소프라노 전영선과 베이스(Bass) 구본수가 함께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OST 'All I





Ask of You', 피아노(Piano) 박영성과 바이올린(Violin) 백건의 '죽음의 무도' 연주 등이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했다.

이날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남성 4중창(테너 Tenor-김범진, 손지훈, 바리톤 Baritone-문광훈, 베이스 Bass-구본수)의 무대였다. '12월 어느 멋진 날에'의 따뜻한 음색으로 원익 임직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남성 4중창은 경쾌한 분위기의 '경복궁타령'을 비롯해 '푸니쿨리 푸니쿨라', '공주는 잠못이루고' 등의 무대를 이어나갔다. 부드러우면서도 때론 경쾌하고 힘찬 무대에 원익 임직원들은 앵콜을 연호했고, 남성 4중창은 '오슬레미오'를 앵콜곡으로 선보였다. 끝으로 남성 4중창은 금관 5중주와 함께 '오 해피데이'를 선보이며 이날 '원익 송년음악회'의 마지막을 화려하고도 깊은 울림으로 장식해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처럼 한 해 동안 원익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힘쓴 전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고자 마련된 이번 '원익 송년음악회'는 따뜻한 음악과 함께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자리



로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원익 이용한 회장은 "원익빌딩을 설계하고 시공하면서 우리 기업 문화가치인 '자유', '소통', '행복'을 구현하려 노력했다. 아직은 어색한 분위기가 있어 좀 더 마음을 열고 거리낌 없이 행복한 직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이번 '원익 송년음악회'를 마련했다"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원익빌딩의 가족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 문화가치를 실현하면서 다른 계열사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용한 회장은 "2013년 원익은 건설적인 성장을 이뤘다고 생각한다. 또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변화와 성장이 있을거라 확신한다. 2013년 힘들고 어려웠던 일은 모두 잊고 2014년에 새롭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글 윤보라 · 사진 조인기

“우리가 최고다!” 자신감 넘치는 구호로 시작된 원익인의 2014년 갑오년(甲午年)새 해

2014년 새해 첫 출근일인 1월2일, 원익빌딩에는 “우리가 최고다!”라는 힘찬 함성이 울려 퍼졌다.

지난해 판교 원익빌딩 준공과 함께 입주한 원익 계열사들의 전 임직원이 외친 이날의 함성은 원익의

더 큰 성장과 발전을 다짐하는 굳은 의지였다. 이날 사무식에 참석한 임직원들의 얼굴에는

“우리가 최고다!”라는 구호처럼 자신감 넘치고 희망찬 새해를 기쁘게 맞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지난 한 해 임직원의 노고 격려하며 훈훈한 새해 맞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2014년 원익 시무식이 1월2일 오전 10시 판교 원익빌딩 1층 로비에서 열렸다. 원익 전 계열사 임원 및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시무식은 2013년 원익인상 시상식 및 2014년도 임원 사령장 수여식, 이용한 회장의 신년사 및 계열사 사장단의 신년 인사 순서로 진행됐다.

2014년 시무식은 지난 한 해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2013년 원익인상 시상식’으로 시작됐다. 원익 전 계열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2013년 원익인상’은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우수한 성과를 세운 직원들을 추천 받아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상 및 기술개발 부문, 생산 부문, 영업마케팅 부문, 관리혁신 부문 등 총 5명의 수상자를 선정한다.

‘2013년 원익인상’ 영예의 대상에는 (주)원익아이피에스 반도체 연구소 권영수 부장, 기술개발 부문은 (주)원익머트리얼즈 생산기술팀 김국재 부장, 생산 부문은 (주)원익머트리얼즈 생산팀 이수환 과장, 영업마케팅 부문은 (주)원익엘앤디 고객센터팀 오창희 과장, 관리혁신 부문은 (주)원익아이피에스 구매팀 이춘행 부장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지난해 뛰어난 창의성과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일 년 동안 탁월한 성과를 올린 ‘2013년 원익인상’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부상이 수여, 이날 시무식에 참석한 임직원들의 큰 축하의 박수가 쏟아졌다.

이어 2014년 신규 임원 및 승진 임원 사령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주)원익 이재현 부사장이 2014년 1월1일부로 (주)원익 사장 및 기획조정실 실장으로 승진했고, (주)원익아이피에스 김영원 부사장, (주)원익큐엔씨 정우현 부사장, (주)씨엠에스랩 조용래 부사장, (주)원익큐엔씨 이병환 전무와 최현욱 전무, (주)위닉스 양원용 전무가 각각 승진임원 사령장을 수여 받았다.

또 (주)원익큐엔씨 조관준 상무, (주)원익아이피에스 권영수 상무, (주)원익머트리얼즈 서봉수 상무, 신원종합개발(주) 김일곤 상무, 원익투자파트너스(주) 이형우 상무, (주)원익큐브 한상윤 상무, 김종호 상무가 신규 임원 사령장을 수여 받았다.

전 계열사 대표이사들의 새해 인사

2014년 세계적 기업으로 더욱 성장할 원익을 꿈꾸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2013년 원익인상’ 시상과 2014년 신규 임원 및 승진 임원 사령장 수여식과 함께 이용한 회장을 비롯한 전 계열사 대표이사들의 새해 인사가 이어졌다.

먼저 원익 이문용 부회장은 “지난해까지 오산 (주)원익아이피에스에서 근무하다가 오늘부터 원익빌딩에서 정식 근무하게 됐다. 반갑게 맞아달라”고 첫 인사를 전했다. 이어 이문용 부회장은 “(주)원익아이피에스가 작년





초기 상당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거라 예상했는데, 하반기에 좋은 성과를 내며 마무리를 잘했다. 실질적으로는 올해가 더 중요한 것 같다”며 “저는 올해부터 (주)원익아이피에스, (주)원익큐엔씨, (주)원익머트리얼즈 반도체 3사의 발전방향에 대해 더욱 고민할 계획이다.

또한 회장님이 강조하시는 자유분방한 사고방식과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약속했다.

원익투자파트너스(주) 김대유 부회장은 ‘위하여!’ 라는 구호에 ‘위-위기는 기회다, ‘하-하면 된다, ‘여-여러 분과 함께 라는 삼행시를 선보이며 임직원들과 함께 구호를 외쳐 눈길을 끌었다. (주)원익아이피에스 변정우 대표이사는 “올해 청마의 기상을 받아 탁월한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주)원익아이피에스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전했고, (주)원익큐엔씨 박근원 대표이사 역시 “원익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주)원익큐엔씨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크게 발전하는 한 해를 도모하겠다. 올해도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슴에 많이 담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익투자파트너스(주) 이용성 대표이사는 “원익투자파트너스(주)는 원익빌딩에 입주하지 못했으나, 한 가족으



로 여겨주시고 만날 때마다 반갑게 맞아달라.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주변에 행운이 가득하길 빌겠다”고 말했고, 신원종합개발(주) 박영일 대표이사 또한 “올 한 해 원익 가족 모두가 보다 자유로운 사고 방식을 갖고 직장가 가정에서 더욱 행복하길 바란다”고 임직원 모두의 행복을 기원했다.

또 지난해 원익그룹의 가족이 된 (주)원익큐브 오영신 대표이사와 (주)씨엠에스랩 조용래 대표이사는 “새로운 기반으로 말처럼 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올해는 명실상부한 원익의 따뜻한 구성원으로서 임직원들과 새로운 성장의 첫 발을 디딜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굳건한 다짐을 전했다.

이외에도 (주)원익 이재현 대표이사, (주)위닉스 장홍식 대표이사, (주)원익엘앤디 이재천 대표이사 역시 2014년 한 해 동안 원익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며 임직원들의 따뜻한 배려와 지원을 당부했다.

원익의 성장과 생존, 기업문화 가치 강조

전 계열사 대표이사들의 새해 인사에 이어 원익 이용한 회장은 2014년 원익의 성장과 생존에 대한 믿음과 굳건한 의지, 기업문화 가치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용한 회장은 “원익 계열사들의 주력 사업이 반도체 사업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반도체 사업이 정체기를 겪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사라졌고, 지금도 생존 경쟁을 해야 하는 시점에 우리가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계속 성장하고 생존해야 할 지 깊이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틀림없이 생존하고 성

장할거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인적 자산과 문화적 가치를 합하면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설 거라 믿는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는 환경이기에 계속 앞으로 가야만 한다. 이 믿음을 갖고 2014년 여러분들의 얼굴에 행복과 자신감
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시무식에서 이용한 회장을 비롯한 전 계열사 대표이사의 바람과 의지처럼 2014년 원익은 기업들 간의
끝없는 생존 경쟁에서 굳건하게 성장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함은 물론, 임직원 모두가
행복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최고다!”라는 합성을 외치며 희망찬 새 해를 맞이했다.

글 윤보라 · 사진 조인기

2014년도 승진 인사 및 신규임원 선임

사장 승진		부사장 승진		전무 승진									
	(주)원익 이 재 현		(주)원익아이피에스 김 영 원		(주)원익큐엔씨 정 우 현		(주)씨엠에스랩 조 응 래		(주)원익큐엔씨 이 병 환		(주)원익큐엔씨 최 현 욱		(주)위닉스 양 원 욱
신규 임원 _ 상무						임원 직급 이행 _ 상무							
	(주)원익큐엔씨 조 관 준		(주)원익아이피에스 권 영 수		(주)원익머트리얼즈 서 봉 수		신원종합개발(주) 김 일 곤		원익투자파트너스(주) 이 형 우		(주)원익큐브 한 상 윤		(주)원익큐브 김 중 호

2013년 원익인상

대상	기술개발부문상	생산부문상	영업마케팅부문상	관리혁신부문상
				
권영수 부장 (주)원익아이피에스 반도체연구소 개발팀	김국재 부장 (주)원익머트리얼즈 생산기술팀	이수환 과장 (주)원익머트리얼즈 생산팀	오창희 과장 (주)원익엘앤디 서비스팀	이춘행 부장 (주)원익아이피에스 구매팀
● System LSI영역 ARM/HM 공정으로 최초 양산화 성공 및 해외진출 ● VNAND 3D MOLD / HT TEOS 개발 및 양산화 성공	● 반도체 & OLED 공정용 초고순도 N2O 상업 Plant 구축 ● NH3 초고순도 Plant 증설	● 영업 확대 계획에 따른 생산량 대응 및 제조 경쟁력 확보를 통한 최고 매출 및 영업이익 달성 기여 ● 수출 향상 및 제조 리드타임 단축, 가동율 증가, 재작업을 감소	● 회사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 및 고객 확보, 골프장 내장객 수 증대 및 매출 성장 기여 ● 매출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판촉 활동 및 영업활동 지속	● 원가절감 TFT 주도 및 전략적인 가격협상을 통한 재료비 절감 ● 적극적인 납기 대응으로 수주 활동에 기여

한국 바둑 국가대표 상비군 체제 출범

그동안 원익이 오랫동안 후원해 오던 바둑대회인 원익배 십단전을 마무리하고

위기의 한국바둑을 살리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2014년부터는 국가대표 상비군 체제 출범 및 운영에 대해 후원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한국바둑이 중국에 빼앗긴 바둑최강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상비군 40명 선발을 마치고 본격적인 재도약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몇 년 전만 해도 세계최강을 자부하던 한국바둑은 올해 열린 세계대회 개인전 우승을 모두 중국에 빼앗기는 등 벼랑 끝 위기에 직면해있다. 이에 한국 바둑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출범한 바둑 상비군이 마침내 작년 11월부터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갔다. 이홍열(총감독), 안조영(감독) 9단, 박승철(코치) 7단이 팀을 맡게 될 상비군은 랭킹상위자 11명, 여자 부문 8명, 영재 부문 10명, 그리고 지난해 8월, 9월부터 열린 상비군 선발전을 통해 선발된 10명이 합류해 총 40명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한국기원은 아시안게임과 실내무도아시안경기 등을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가대표팀을 운영한 적은 있지만 상설기구로 상비군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국가대표 상비군 출범 및 운영에 대한 모든 비용은 원익에서 후원하는 등 새로운 형태로 한국 바둑 역량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상비군 훈련은 4개조 리그전과 그룹별 연구회 등으로 이뤄진다. 랭킹별로 나뉘어 매주 화요일 열리는

1~4조 리그전은 상위 3명이 상위조로 올라가고 하위 3명이 하위조로 떨어지는 승강제를 도입했다. 승강제는 한국기원 연구생리그에서 적용하던 방식으로 경쟁효과를 높이면서 훈련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시스템으로 평가 받고 있는 제도다.

안조영 상비군 감독은 “한국기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원익의 아낌없는 후원을 약속 받은 만큼 자율성과 규율을 적절히 안배 운영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상비군 리그전을 바둑리그와 함께 한국바둑의 양대 축으로 발전시킬 예정인 한국기원은 상비군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훈련 성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훈련 장소 지원’ 및 ‘제한시간 2시간





리그전 도입’, ‘정상급 기사와 영재들의 이원화한 프로그램 마련’ 등과 함께 철저한 관리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기원 양재호 사무총장은 “그동안 한국바둑이 속기바둑 편중과 공동연구 부족으로 인해 라이벌 중국에 점점 밀리는 양상을 보여왔다”면서 “상비군 체도를 통해 한국 바둑 제2의 도약을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국가대표 상비군 훈련의 일환으로 2013년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한일 국가대표 상비군 평가전이 한국기원에서 열렸다. 한국과 일본이 국가대표 상비군 평가전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세계 바둑계에서 중국세가 맹위를 떨치자 한일 양국은 올해부터 국가대표 상비군을 잇달아 창설하고 신예 유망주들의 발굴, 육성에 힘써왔다. 일본 바둑 국가대표팀 ‘고고재팬’ 감독인 야마시로 히로시 9단의 제안으로 열리게 된 이번 평가전에 한국은 한승주, 황재연, 신민준, 신진서, 최정 등 1995년 이후에 출생한 상비군 영재 조 소속 선수 위주로 팀을 꾸렸고 박영훈, 이지현 등 상위 랭커들도 일부 참가했다.

원익이 후원하는 [세계 최강 한국 바둑 되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범한 한국 바둑 국가대표 상비군은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한국바둑의 경쟁력 강화 및 훈련의 상시화로 전력 극대화를 끊임없이 추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리그전을 통한 실력 향상은 물론 그룹별 공동연구회, 신수발표 등 다양한 연구회 활동과 팀웍 향상을 위한 전지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남녀 및 영재 국가대표 상비군 체제 운영을 통해 중국 바둑에 대한 경쟁력 확보와 함께 공동연구 및 적극적인 경쟁체제를 대비하고 유지함으로써 경기력 향상은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바둑 역량을 확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SECTION 02 | 疏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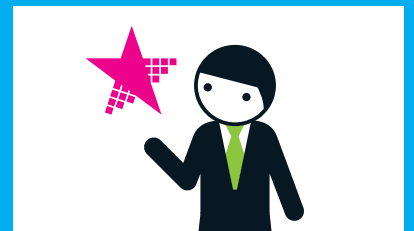
42 **Never Ending Challenge** 선진기업사례 넷앱(NetApp)



46 **Wonik Business** 신원종합개발(주) '경주 신원아침도시' 성공적 분양



50 **Talk Box** 2014년 새해소망 새해계획



함께하는 소통

원익사의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나눴는
더 큰 우리를 키워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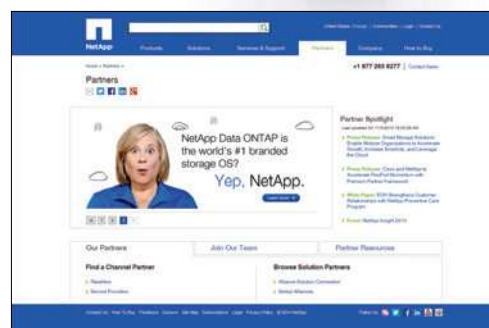
일보다는 사람 혁신 기업 ‘넷앱’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단순한 임금을 위한 직장생활을 하지 않게 되었다. 직원들은 더 나은 근무환경을 원했고, 기업은 그 수준에 걸맞은 기업 문화를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임금만큼이나 복리후생에 관심을 더 갖게 되었고, 여가 시간과 사내 환경이 중요시 됐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행복도는 기업의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다국적 기업

GPTW(Great Place to Work)가 전 세계 39개국, 2,900개 기업, 290만 명을 대상으로 업무환경을 조사해 발표한 ‘2013년 세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다국적 기업’에서 넷앱이 3위에 선정되며, 3년 연속으로 톱 3에 이름을 올렸다. 개별 국가 순위에서도 넷앱은 프랑스, 독일, 중국의 기업 중에서는 1위에 올랐으며,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에서 2위, 호주에서 3위를 차지하는 등 전 세계에서 고르게 상위권에 올랐다. 또한 IDC가 발표한 ‘2013년 스토리지 사용자 수요 연구’ 조사에서도 퍼블릭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부문 1위에 선정되면서 넷앱은 근무환경만 우수한 회사가 아님을 증명했다.

1992년 실리콘밸리의 서니베일시에서 설립된 넷앱은 한국의 넷앱 코리아를 비롯해 전 세계 150



여 곳의 지사에서 1만5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매년 20%이상 성장세를 보인 넷앱은 현재 글로벌 스토리지(저장장치) 운영체제(OS) 1위, 스토리지 시장 2위이며 2012년 기준 20년 만에 62억 3,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린 우량기업이다. 넷앱은 아마존 웹서비스(AWS) 클라우드 시스템 최초의 스토리지 공급업체이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올해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파트너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전 세계 175개 이상의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넷앱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300개 이상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데이터온타임이 구축돼 있다. 국내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8개사가 모두 넷앱 스토리지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로 구글, MS, 소니 등의 글로벌 IT 기업들이 감원을 발표했을 때 넷앱은 오히려 528명의 인력을 충원하여 고용을 늘렸다. 넷앱은 2009년 포춘지에서 선정하는 ‘일하기 좋은 기업’에서 구글을 누르고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직원들은 다른 회사로부터 더 나은 직책이나 연봉을 제안 받았을 때가 아니라, 지금 회사에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 이직을 생각합니다.” - 톰 멘도자 부회장¹

넷앱은 처음 벤처를 시작할 때부터 수평적인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 시작으로 직급 간의 불필요한 격식은 없애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문화를 조성했다. 넷앱은 설립 초기부터 이메일을 통해 선행을 배운 동료들을 추천하고, 부회장이 매일 추천 받은 직원들에게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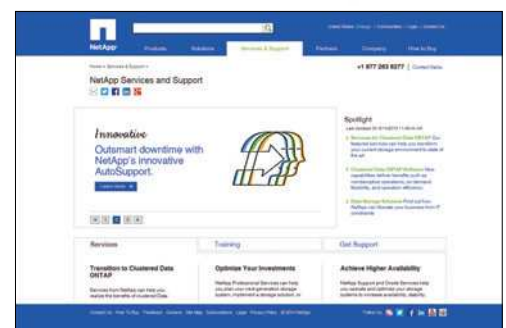
전화를 한다. 임원들의 감사전화는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지게 하고, 업무성과의 향상으로 이어진다.²

넷앱의 사무실은 사장실을 포함한 임원실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임원과 사원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이다. 회의공간을 제외한 모든 공간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임원과 사원간의 신뢰도 두터워진다.

“1달러를 아끼기 위해 직원들이 녹초가 되도록 일할 필요는 없다.”

위의 말은 넷앱의 경영관이다. 이를 바탕으로 넷앱은 따뜻하고 활기찬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른 회사들과는 차별화된 다양한 직원 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넷앱은 직원들이 자녀를 입양할 때 최대 2만달러



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2006년부터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어린 자녀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전 직원들에게 1년에 5일씩 자원봉사를 위한 유급 휴가(Volunteer Time Off)를 제공한다. 직원들은 자신이 원할 때 자신이 선택한 비영리 기관 또는 학교 등의 장소에서 자원 봉사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탄력근무제를 도입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내 헬스장과 세차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넷앱의 매주 화요일은 '과일 데이(Fruit Tuesday)', 금요일은 '베이글 데이(Bagel Friday)'이다. 사원들은 회의실이나 휴게실에 모여 각자 준비해 온 과일과 베이글 등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1년에 한 번씩은 회사 임직원들과 협력사, 지역주민들과 모두 함께 걷기 대회를 한다. 또 직원들은 골프, 배구, 탁구 등의 경기를 하거



나 요가 등을 배울 수도 있다. 직원들 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 넷앱의 배려에서 탄생된 프로그램들이다.

톰 조젠스(Tom Georgens) 넷앱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넷앱은 전 세계 모든 임직원들이 최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고객, 파트너, 지역사회와 함께 일을 하는 기업문화를 갖고 있다”며 “3년 연속 Top 3에 선정된 것은 혁신과 팀워크를 중시하는 넷앱 기업문화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물론, 고객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던 그 간의 열정이 반영된 결과여서 더욱 뜻 깊다”고 말했다.

일보다는 사람

넷앱은 직원의 성공이 곧 기업의 성공이라 보고 직원들이 직무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도록 장려하

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제공한다. 사내 대학을 통한 강의교육으로 전문기술을 개발 시키고, 오리엔테이션, TOAST, 분기별 회의, 사내 네트워크, 멘토링, 교육비 상환 등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증대시킨다. 여기서 넷앱만의 특징인 TOAST는 Training On All Special Things의 약자로, 하루종일 인재 개발 팀과 함께 강연과 식사 등을 하면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넷앱의 비전과 원익

넷앱의 비전 중 하나는 모델 기업이 되는 것이다. 타기업의 모델이 된다는 것은 명예롭게 시장에서 승리하는 것이라 넷앱은 확신한다. 이 비전은 핵심가치를 다함께 간직하고 생활화하여 넷앱이 기업과 지역 사회를 위해 가능한 최상의 결과를 만

들어내게 하는 바탕이 된다.

원익이 추구하는 ‘행복’은 구성원 모두가 원익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신뢰를 기반으로 즐거운 일터를 만들며, 일을 통해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는 것이다. 현재 원익은 행복 가치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 시설과 휴식 공간, 체육 시설 등의 도입은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한 원익의 모습을 보여준다.

(주)원익큐엔씨는 자체적으로 ‘직원행복지수’에 관한 설문조사와 개인면담을 바탕으로 더 나은 기업문화 조성하고 제고에 힘써오고 있으며, (주)원익투자파트너스는 행복의 근원을 임직원과 가족까지 범위를 확대해 바비큐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주)원익머트리얼즈 역시 입학자녀에게 축하 선물을 지급하고, 졸업하는 직원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를 해오고 있다. 가족 친화 경영의 일환으로 일과 가정의 균형과 행복이 곧 회사의 성장으로 연결된다는 취지에서다. 이 밖에도 원익은 임직원들을 상대로 리더십 과정을 개설하여 행복한 일터 만들기, 행복을 이끄는 리더 되기 등의 교육을 실시해 행복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행복한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원익의 기업문화가 많은 타기업들의 모델이 되어, 공존과 상생의 가운데에 우뚝 서는 글로벌 리더가 되기를 꿈꾸어본다.



1. 훈창통, 이지훈, 쌤앤파커스
2. 서울경제 / 오피니언 / 사내칼럼 2013.03.26 / "직원 행복이 곧 기업 경쟁력"

희망찬 새해 첫 출발, 임직원 모두 함께 한마음으로 일궈낸 성공!

신원종합개발(주)이 기분 좋은 소식으로 새해를 맞이했다. 신원종합개발(주)이 지난해 11월 말 야심차게 선보인 '경주 신원아침도시'가 100% 분양을 완료한 것. 이번 '경주 신원아침도시'의 분양 소식은 임직원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궈낸 결과로 신원종합개발(주)은 성공적인 2014년의 첫 출발을 알렸다.



지역적 특성 한껏 살린 '경주 신원 아침도시'

경북 경주시 충효동 100-14에 자리잡은 '경주 신원아침도시'는 '공기 좋고, 살기 좋고, 미래까지 즐거운 곳'이라는 최적의 입지 환경은 물론, 역사 깊은 문화도시 경주의 특성을 잘 살려내며 분양 준비 단계부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관심을 모았다. 송화산을 뒤로 하고 형산강을 바라보는 배산임수의 입지를 자랑하는 경주 신원아침도시에는 철쭉 등산로와 강변 역사공원을 곁에 두고 있어 여유로운 휴식과 도심 속 낭만을 누릴 수 있는 자연 환경을 갖췄다. 또 인근의 김유신묘와 흥무공원, 경주국립공원 서악지구의 등산로 등 지역의 명소는 역사와 문화를 답사하는 자연학습장



이자 쾌적한 쉼터로 365일 힐링 라이프를 선사한다.

경주 신원아침도시는 최적의 자연 환경과 함께 도시의 편리성도 갖췄다. KTX 신경주역에서 10분, 경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경주 시내 외는 물론 포항이나 울산 등 대도시로의 빠른 특급 교통 환경을 자랑한다. 또한 단지 옆으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사옥이 들어설 예정으로, 임직원들의 도보 출퇴근이 가능하며 서천교의 초입에 위치해 있어 경주시내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이외에도 경주에 새 부도심을 건설

하는 'KTX 신경주 역세권 지역종합개발사업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고, KTX 신경주역 인근에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지방도 904호선 등이 확장 개통되면 접근성과 입지성이 더 높아져 경주 신원아침도시의 가치는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교육 환경도 빼놓을 수 없다.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경주초등학교가 도보 3분여 거리, 경주여중, 신라고교, 서라벌대학교 등 명문학교가 단지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월성중, 신라초, 경주정보고 등 다수의 초-중-고교가 도보거리에 밀집해 있는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췄다.



삶의 질 높여줄

특화 커뮤니티

경주 신원아침도시의 단지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쉼터와 특화된 커뮤니티 제공 등 삶의 질을 높여 줄 최적의 설계 역시 주목할 만하다. 단지 내 50여 석 규모의 독서실을 갖춰 면학분위기와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최신 시설의 휘트니스 센터와 요가 룸, 실내 골프연습장을 완비했다. 또한 단지 내 놀이터 시설은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나는 놀이공간으로, 경로당은 어르신들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외에도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쉼터로 손색이 없는 선큰벽천까지 조성되어 있어 여유로운 휴식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휘트니스 센터와 요가 룸

등은 선큰벽천을 시원하게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돼 보다 아름답고 특별한 시간을 선물한다.

경주 신원아침도시는 디지털 웰빙 라이프에도 초점을 맞췄다. 집안에서 엘리베이터를 미리 호출하고, 차가 단지에 들어오면 알려주는 엘리베이터 호출 기능과 주차관계 시스템을 비롯해 홈네트워크 시스템, 조명 및 가스 외부 제어 기능 등을 제공한다. 또 집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배를 관리할 수 있는 무인택배 시스템은 물론 원격 점검 시스템, 무인경비 시스템



입주민들을 배려한 최적의 환경과 시설

도 갖췄다.

최근 아파트의 층간 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주 신원아침도시는 층간 소음 완충제와 저소음 세대 욕실 등 실내 층간 소음 걱정을 줄이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또 세대 환기 시스템, 친환경 절수형 양변기, 음식물 탈수기, 욕실 바닥난방을 완비해 입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청결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남향 위주의 배치와 중형으로 구성된 평형 단지라는 특징과 함께 경주시에서 마지막으로 시행되

는 양도세 면제 혜택 및 무제한 전매 가능 단지라는 장점까지 더해진 경주 신원아침도시는 최적의 입지환경과 주거환경, 신원만의 특화된 장점으로 지역 주민들을 사로잡으며 100% 분양이라는 성공을 거뒀으며, 오는 2015년 2월 입주 예정이다.

한편 이번 경주 신원아침도시를 성공리에 분양한 신원종합개발(주)는 앞으로도 30년 아파트 건설 역사를 갖고 있는 건설기업의 노하우와 임직원들의 단합으로 최적의 환경과 시설을 제공하는 최고의 건설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다.

글 윤보라 · 사진 조인기

2014년!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원익
Service
임수진 사원



한 해를 돌아보면 2013년은 저에게 있어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는 한해였습니다.

첫 출근의 두근거림, 원익 직원들과의 첫 만남, 첫 All Employee Meeting, 회사 창립 기념일에 따른 원익 가족 힐링나들이 행사 등 모든 일들이 새로운 출발이었으며 새로운 경험들이었습니다. 긴 시간이지만 짧게만 느껴졌던 2013 계사년 뱀띠의 해가 가고 어느덧 2014년 갑오년 청마의 해가 왔습니다.

매년 1월 1일에는 첫 일출을 보며 새해 소망을 빌곤 했었는데 올해는 기회가 닿지 않아 일출을 보러 가지 못해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러던 중 이렇게 2014년을 맞아 새해 소망을 생각해보고 계획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얼마 전 판교 신 사옥에서 각자의 희망을 적어 넣

은 유리병 편지를 전시하는 ‘2014 희망편지 이벤트’ 행사가 있었습니다.

다이어트, 자격증 취득, 건강, 독서, 취미 만들기, 연애, 편식하지 않기, 매사에 긍정적이기, 등등 한 해에 이루고 싶은 것들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무엇을 적을까 한참 고민하던 끝에 적은 것은 ‘모든 일에 있어 행복’이라는 한 줄이었습니다. 많은 계획들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들을 실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또는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실천이 아니라 본인의 마음이 담긴 진정성 있는 계획과 실천이야말로 제가 소망하는 행복한 삶이 되는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의 평소 잘 웃는 습관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더 진정성을 담아 표현하고 실천한다면,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이들 또한 2014년을 행복한 한 해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희망해 봅니다.

원익 가족 여러분, 새롭게 시작된 2014년!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원종합개발(주)
재경팀
문성준 과장



육십간지 중에서 31번째로 푸른색(甲)과 말띠의(午)의 합하여 청말띠(서양에서는 행운의 상징 유니콘을 뜻하기도 함)라고 하는데 60년만에 돌아오는 해라고 합니다. 작년 2013년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그 중 두개 정도를 꼽으라고 하면, 첫 번째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 1년 5개월의

연애 - 5월 18일에 결혼에 골인!!

새로운 가정을 얻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처럼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알콩달콩 잘 살아
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신원종합개발(주)에 대리로 입사한지 5
년만에 과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어 가정, 직장동
료들의 격려 · 축하를 많이 받았습니다.

기쁨이 두 배인 만큼 이번 한 해는 말로 기본적으
로 뜻하는 역동성, 성공, 건강함등등... 대체적으
로 승승장구함을 뜻함에 따라 새로운 마음으로
업무를 시작하려 합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나 겪을 일들에 대해 보다 긍
정적으로 생활함과 동시에 건강관리에 유념하여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치로운 일에 대한 자긍심을
갖추고 정진해 나가려 합니다. 참고로 제가 말피
라서 2014년은 더욱더 기운이 납니다.

원익그룹 가족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좋은 일들만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
습니다.

(주)원익아이피에스
생산기술센터 제조기술팀
윤영구 부장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팀원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청마와 같이 힘차게 달려 회사에서 추구하
는 비전인 Create OnLY 1, Make 1210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조기술팀이 회사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3년 정신 없이 앞만 보고 주의를 돌아볼 시간
없는 한해를 보냈고 정말 열심히 해준 제조기술
팀 팀원들 정말 감사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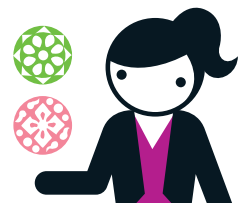
제조기술팀은 본부체계 운영에서 통합체계로 팀
개편이 되었는데 각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솔라
모든 팀원들이 각 분야에서 맡은바 업무를 충실
히 해주어서 크나큰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반도체에서는 G/B 양산설비를 해외에 첫 번째
납품하는 실적을 거두어 우리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디스
플레이에서는 8G Dry Etcher 양산설비를 해외
에 첫 번째 납품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어렵
고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제조기술팀 전체 인원
들이 협력하여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최선을
대해서 노력해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조기술팀 인원들이 각자 서로의 업무에 바쁘고
여유없는 일상 생활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며 자신
보다는 동료들 먼저 생각하며 함께 화합하고 성
장하는 팀을 이루길 바라며 안전사고 없이 주어
진 업무 최선을 다하며 모두가 건강한 회사 생활
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갑오년 새해에 가정에 웃음과 기쁨이 가득하길
바라고 이루고자 하는일 모두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제조기술팀 파이팅”

(주)원익머트리얼즈
구매팀
남영주 과장



2014년 희망의 갑오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익인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웃음과 건강, 행운
이 가득하길 기도해봅니다.

2013년은 개인적으로 도전의 해였습니다.

출산으로 회사를 잠시 쉬고 육아라는 것을 처음
시작했는데, 보기에 별 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

던 이 육아라는 것이 초보 엄마인 저에게는 갓 먼
허를 따고 운전대에 오른 초보 운전자처럼 불안
하고 서툴기만 했습니다.

5일도 안되어 중이염에 걸리고,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아토피로 얼룩덜룩한 얼굴을 볼 때
마다 무지한 엄마로 인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가 고생하는 것 같아 미안하고 안쓰러웠지만 큰
사고 없이 2013년 한 해를 마무리하여 그저 감사
한 마음입니다.

한창 바쁜 시기에 휴직을 하여 팀에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는데 무사히 육아를 마치고
복귀할 수 있도록 심적으로 지지해주신 팀장
님을 비롯해 그만큼 더 바쁘고 고됐을 팀원들 모
두에게 미안함과 감사함을 전합니다. 올해에는
보다 열심히 하여 팀에 보탬이 되는 사람, 회사의
변화와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2014년 저의 소망은

우선,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길 바랍니다.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하다 보니, 가족의 건강이 곧 경쟁력
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항상 감기를
몰고(!)오는 아들을 선두로 아빠와 엄마 모두 줄
줄이 감기에 걸려 끔찍 일주일인데, 올해는 셋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
작한 아이에게 도처에 모든 것들이 위험투성이
같아 불안하지만 크게 다치지 않고 잘 자라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망은 원익머트리얼즈가 지금까지의 성
장 그 이상을 달성하는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
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
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말처럼,
순간순간 즐겁게 일하고 소통하여 뜻한 바를 성

취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고 계발하
고 싶습니다. 쉬는 동안 계획해 놓고 실천하지 못
한 것들 - 사놓고 읽지 못한 책 읽기, 토익 갱신
- 을 올해는 꼭 실천하고 싶습니다. 퇴근 후면 가
사와 육아가 반복되는 바쁜 일상이지만,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나 자신을 위해서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모회사의 유명 CEO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5개의 공을 굴리는 저글링이라고 상상해
보면, 이 5개의 공은 각각 일(work), 가족
(family), 건강(health), 친구(friends), 그리고 나
(spirit)이다. 일은 고무공과 같아 떨어뜨리더라
도 다시 튀어 오르지만, 나머지 4개의 공은 유리
로 되어있어 한 번 떨어뜨리면 굵히고, 깨지고 흘
어져버려 다시는 전과 같이 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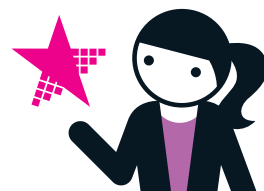
올해는 이 다섯 개의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조화
롭게 굴러 균형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저의 최대
목표이자 계획입니다.

올해는 靑馬의 해입니다.

말은 강한 체력, 민첩한 순발력을 지녔으며 또 지
혜로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2014년은 말의 힘차고 좋은 기운 때문에 각종 난
관들도 지혜롭게 극복하며, 힘차게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봅니다. 이 글을 보시는 원익인
모두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에서 풍성한 결
실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원익투자파트너스(주)
벤처투자본부
심사역 정지윤



원익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막 원익투자 파트너스 입사 7개월차에 접어들고 있는 정지윤 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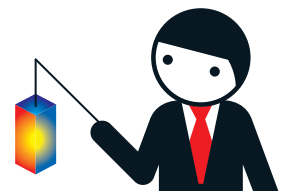
2014년 저의 개인적인 목표 중 가장 우선하는 것은 금연입니다. 과거에 이미 여러 번 금연을 시도 했었으나 의지박약으로 인해 번번이 실패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정말 담배와 영원히 이별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지난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 제가 어떠한 순간에 담배의 유혹에 넘어갔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유혹들을 피하려면 어떠한 습관과 생활패턴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담배는 마약류에 버금갈 정도로 무서운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거 경험들을 바탕으로 철두철미한 금연계획을 수립하여 올해는 반드시 금연에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렇게 수많은 원익인 여러분 앞에서 공식적으로 금연을 선포하였으니 담배를 피우고 싶어도 도저히 피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말부터 금연을 시작하여 비록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벌써 좋은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 담배를 피기 위해 건물 밖까지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몸이 훨씬 더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말지 못했던 냄새와 음식 맛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담배를 끊어서 좋은 점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직 담배를 피우고 있는 원익인이 계시다면 저와 금연에 동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개인적인 목표 외에 조직 내에서 저의 올해 목표는 좋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좋은 투자란 결국 높은 투자수익률을 달성한 투자일 것입니다. 비

교적 투자회수기간이 긴 편인 벤처투자에서는 적어도 3~4년은 지나야 투자의 결과물이 나타나기 때문에, 미래에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좋은 씨앗들을 많이 뿌려놓아야 합니다. 좋은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대해 남보다 많이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지 많이 알고 있다고만 해도 좋은 기업에 투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업분야와 기업들이 존재하고 그 중에서 장기적인 성공에 도달하는 기업은 극히 제한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좋은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기회를 검토하여야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벤처투자를 모래밭에서 사금을 캐는 작업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올 한해는 학생의 자세로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쉴 새 없이 좋은 기업을 찾아 발로 뛰는 한 해를 보냈으면 합니다.

저의 올 한해 목표달성을 원익인 여러분들께서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위닉스
해외영업팀
장용화 사원



원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위닉스 해외영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원 장용화 입니다. 2014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원익 가족들 앞에서 제 새해소망을 알려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째, 동료들에게 일에 대한 믿음과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되자! 동료들이 제가 맡고 있는 업무에 관해 저 스스로 알아서 잘 할거라고 믿고, 안심시

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맡은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리더의식을 갖고 동료들에게 일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시작이 느린 편 입니다. 32살에 입사하여 지금 일을 배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시작이 느리지만 급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삶은 각자의 몫이 있고, 남과 비교하기보단 내 앞에 주어진 삶에 충실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시작은 남들보다 느리지만 직장생활의 끝은 제가 더 길 수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가족들의 지금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아버지, 어머니, 형의 모습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많이 다투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만든 틀속에 가족들을 넣지 않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지금 이순간을 함께 웃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게 된 이유는 신부님의 강론을 듣고 난 뒤부터였습니다. 신부님께서 강론중에 몇 년전 사별하신 할머니께 할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이제 혼자 되니 마음이 어떠신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뻔히 이별할 줄 알면서 그땐 왜 그랬을까, 조금 더 잘해줄 걸,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줄 걸.”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제 60대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 편을 들어주시고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신다면 저는 지금의 삶을 온전히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께서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 이순간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갖고 싶습니다.

셋째, 퇴근 후 매일 꾸준한 운동으로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자! 퇴근후 집에 가서 매일 팔굽혀펴기, 아령운동, 윗몸일으키기를 꾸준히 하여 근육을 키우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가 없는 주말에는 걷기운동을 2시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타인의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하자!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동료의 장점보다는 나와 잘 맞지 않는 단점이 더 눈에 잘 띄고 신경이 쓰입니다. 단점이 눈에 더 잘 들어오는 이유는 그 부분이 나와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단점을 알게 되면 신기하게도 다른 동료들에게도 말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다 결국 당사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와 불편한 사이가 되버립니다. 이렇듯 남의 나쁜 면만 찾으려는 사람은 누구를 대하든 나쁜 면만 찾으려고 하고, 결국 그자신도 타인에게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자신도 나쁜 면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타인의 좋은 면만을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점을 배우고 싶습니다.

다섯째, 말을 조심하자!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말’ 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은 잘못쓰면 고칠수 있지만 말은 한번 입 밖으로 나가버리면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을 적게 하고 동료들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의 가족여러분, 2014년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유 · 소 통 · 행 복 으 로
더 큰 내 일 을 열 어 가 는
원 익 人 의 따 뜻 한 이 야 기

SECTION 03 | 幸福

56 Zoom in (주)원익 문화체험동호회 '원익 좋은 영화 감상회'



60 Zoom in (주)원익큐브 농구동호회 '스팀팩' (StimPack)



가슴벅찬 **행복**

원익인의
자부심으로 즐거운 일터에서
더 큰 성취와 보람을 만들어갑니다.

업무시간 내 즐기는 영화 한 편, 스트레스 날리고 친목도 다져요

(주)원익의 문화체험동호회가 판교 원익빌딩에 입주한 원익 전체 임직원들의 자유로운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12월20일에는 원익빌딩 2층 A/V룸에서 '좋은 영화 감상회'를 진행, 약 30여 명의 임직원들이 함께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를 관람하며 업무 중 잠깐의 휴식과 함께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행복한 일터 만들기’ 앞장서는

(주)원익 문화체험동호회

회사에서는 업무에만 집중하고, 주말을 비롯한 휴일에는 운동 및 문화생활 등 여가활동. 이렇게 규정짓는 시대는 지나갔다. 자유로운 기업문화가 잘 정착된 글로벌 기업들의 성공사례는 국내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원익 역시 이러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롭게 이전한 판교 사옥은 무엇보다 ‘자유’, ‘소통’, ‘행복’이라는 원익의 핵심가치가 잘 담겨있다. 원익 임직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A/V룸도 그 중 하나다. A/V룸은 각종 사내 교육프로그램은 물론 영화 상영과 음악 감상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에 (주)원익 문화체험동호회가 A/V룸을 활성화 시키고, 원익빌딩에 입주한 계열사 임직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원익 좋은 영화 감상회’를 통해 사내 문화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2월20일 오후 3시, 원익빌딩 2층에 마련된 A/V룸에서는 (주)원익 문화체험동호회가 주최하는 ‘원익 좋은 영화 감상

회’가 진행됐다. 이날 (주)원익 문화체험동호회는 영화 상영에 앞서 커피와 음료, 도넛 등 간식을 준비해 영화를 관람하러 온 직원들이 간단한 요기와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이날은 (주)원익 문화체험동호회 이상엽 회장(TRADE 2팀)과 김혜영 부회장(Ultra Sound팀)이 외근으로 참석하지 못한 빈 자리를 노범래 총무(인사총무팀)가 대신해 행사 진행을 이끌었다. 특히 이번 ‘원익 좋은 영화 감상회’는 문화체험동호회 회원뿐 아니라 원익빌딩에 입주한 전 계열사 임직원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에 대해 노범래 총무는 “원익빌딩에 입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까지 휴식공간에 대한 이용이 활발한 것 같지 않다. 모든 임직원이 A/V룸에서 영화나 음악 감상 등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좋은 영화 감상회’를 기획했다”며 “계열사가 한 곳에 모이다 보니 이질감이 있는데, 보다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원익빌딩 입주 계열사 전 임직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원익 좋은 영화 감상회'에 간식을 지원한 (주)원익 마케팅팀 박종찬 차장은 "원익빌딩 내 모든 임직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행사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간식을 지원했다. 아직까지는 업무시간 내 휴식공간 이용이 활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러한 활동을 통해 보다 더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다양한 문화 활동을 경험하며 함께 소통하는 '문화체험동호회'

(주)원익 문화체험동호회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영화 및 공연 감상, 야구장 관람은 물론 탁구, 당구를 비롯한 스포츠 활동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해오고 있다.

노범래 총무는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기존에 즐겨왔던 취미 활동을 벗어난 다른 문화 활동은 해보지 않았기에 시작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문화체험동호회다"라며 "문화체험동호회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경험을 함께 시작해보자는 의미로 만들어졌다. 동호회 활동을 통해 접해보지 않았던 문화 활동을 경험해보고 개인적으로도 꾸준히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원익 내시경팀 박미주 과장은 "외근직이라 평소 동호회 활동에 자주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점심식사 자리를 마련해 회원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회원들이 모이기 힘들 때 각자 원하는 책을 선물해주는 등 여러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어 좋다"면서 "최근에는 사장님과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를 관람했는데, 평소 티켓 가격이 비싸 접하기 힘들었던 대형 뮤지컬을 회사의 지원과 동호회비로 관람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다”고 문화체험동호회에 대한 사랑을 늘어놓았다.

각종 문화 활동과 이벤트 참여, 그리고 자연스런 기부 활동까지

(주)원익은 문화체험동호회는 ‘원익 좋은 영화 상영회’ 외에도 ‘2014 희망편지 이벤트’, 유니세프 기부행사 등 원익빌딩 입주 계열사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4 희망편지 이벤트’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각자의 희망을 담은 유리병 편지를 신사옥 메모리얼 존에 전시, 보관해주는



이벤트로, 1년 후 자신의 희망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날 ‘원익 좋은 영화 상영회’ 참석하면서 1층 로비에 마련된 ‘희망편지 이벤트’에도 참여한 (주)원익 재경팀 이호영 대리는 “2014년 새해에는 꼭 결혼하고 싶다는 소원을 적었다. 미래를 함께할 배우자를 사내에서 찾고 있는데 쉽지 않다.(웃음) 1년 뒤 꼭 ‘희망편지 이벤트’에 적은 바람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여자친구가 없어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을 기



회가 거의 없다. ‘원익 좋은 영화 상영회’를 통해 큰 스크린에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어 즐겁다”고 이날 ‘원익 좋은 영화 상영회’에 대한 소감도 전했다.

(주)원익은 연말연시를 맞아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유니세프 기부행사도 진행,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류, 신발, 책, 생활용품 등 물품들을 받아 ‘아름다운 가게’에서 판매하고, 판매수익금 전액을 유니세프 기금으로 기부한다. 사내동호회 기부금과 개인 기부금, 신사옥 1층에 마련된 유니세프 모금함 등을 통해 마련된 기부금 역시 1월 중 유니세프에 전달할 계획이다.

(주)원익 재경팀 이승록 대리는 “뮤지컬, 야구장 관람 등 새로운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동호회 활동을 통해 기부도 할 수 있어 뿌듯하다”면서 “바쁜 업무 시간이지만 잠깐 시간을 내면 영화도 관람하고, 계열사 간 직원들을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화체험동호회 노범래 총무는 “앞으로도 꾸준히 원익 빌딩 내에서 업무시간에 잠깐 휴식을 취하는 의미에서 할 수 있는 문화 활동을 기획해 보다 더 자유로운 사내 분위기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단순히 동호회 회원들을 위한 활동이 아닌, 원익 가족이 모두 함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첫 걸음이 어색하더라도 용기 내어 많은 직원 분들이 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호회 경기 맞아?

끈질긴 승부근성 '활활'

프로팀의 경기를 보는 것 같은 짜릿함이 있었다. 실력은 아마추어라고 해도 끈질긴 승부근성 만큼은 프로 못지 않았다. 이러한 열정과 승부근성을 갖고 있는 이들이 속한 회사의 미래가 어찌 희망적이지 않을 수 있을까. 지난 1월9일 열린 (주)원익큐브 농구동호회 '스팀팩'의 경기는 (주)원익큐브의 자유롭고 열정적인 사내 분위기를 온몸으로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해 첫 경기는 IT사업부와 함께 ~

지난 1월9일 오후 6시30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여성문화회관 체육관에 모인 (주)원익큐브 농구동호회 '스팀팩' 회원들은 운동복 차림으로 분주히 몸을 풀고 있었다. 이날은 (주)원익큐브 본사 직원들로 구성된 농구동호회 '스팀팩' 뿐만 아니라 IT사업부도 함께하는 경기로, 약 30여 명의 직원들이 함께했다. 특히 (주)원익큐브 오영신 대표이사, 한상운 상무, IT사업부 김종호 상무까지 임원들도 총출동한 이날 경기에는 선수로 참여하

는 직원들 외에도 10명 남짓의 직원들이 참석, 열띤 응원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주)원익큐브 농구동호회 '스팀팩'은 화학사업부 백민재 과장을 주축으로 2012년 1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스타크래프트 게임 용어 중 '전투용 약물'을 뜻하는 '스팀팩' (StimPack)을 따온 동호회 이름은 '미약 같은 힘'을 의미한다고 백민재 회장은 설명했다.

그는 "처음에는 인원이 10명이 채 안돼 동호회 활동을 승인 받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총 32명이 활동하는 가장 활성화된





동호회다. 제일 늦게 시작한 동호회임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제일 많다. IT사업부를 제외한 전직원의 3분의1이 농구동호회 소속인 셈"이라고 자부심을 나타냈다. 특히 32명의 회원 중 매번 25명 이상이 출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회비 없이 오로지 회사 지원비로만 운영된다고, 지난 2년 동안 체육관 대관료 및 회식, 개인별 농구화 지급까지 모두 회사 지원비로 충당했을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은 '스팀팩'의

자랑이다.

농구동호회 '스팀팩'은 한 달에 두 번 일과를 마치고 회사 근처 체육관이나 야외 농구코트에서 경기를 즐긴다. 큰 경기는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하며, 이날 열린 새해 첫 경기는 처음으로 IT사업부와 함께하는 경기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 (주)원익큐브 화학사업부와 IT사업부는 근무지가 다르고, 외부 업무가 많아 어울릴 일이 별로 없기 때문. '스팀팩'의 총무직

을 맡고 있는 화학사업부 박찬중 사원은 “근무지가 다르고 업무 특성상 친해질 기회가 자주 없었는데, 이렇게 동호회 활동을 통해 만나게 되어 기쁘다”며 “남자들은 땀 흘리며 몸을 부딪혀야 빨리 친해지지 않나. 앞으로는 IT사업부도 자주 경기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명승부, 끈끈한 우정 돋보여~

이날 경기는 (주)원익큐브 본사 A, B팀과 IT사업부, 총 세 팀으로 나뉘 진행됐다. 첫 번째 경기는 오영신 대표이사가 함께한 본사A팀과 IT사업부의 대결로, 첫 경기부터 양 팀은 치열한

승부를 펼쳤다. 경기를 지켜보던 한상운 상무가 “사장님이 너무 열심히 뛰어서 대충 하질 못하겠다. 긴장해야겠다”고 했을 정도. 그동안 꾸준히 실력을 다져온 만큼 경기력은 본사 A팀이 우세했고, 결국 18:13으로 A팀이 첫 경기를 승리했다. A팀을 승리로 이끈 ‘에이스’는 화학사업부 이규민 사원. 그는 “대학 시절 친구들과도 자주 농구 경기를 했는데, 회사에서도 이렇게 직원들과 경기할 수 있어 즐겁다. 지난해 9월 입사해 곧바로 농구동호회에 가입했는데, 신입사원으로서 보다 더 빨리 회사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며 “오늘 첫 경기는 승리했지만, B팀이 막강하다. B팀과의 경기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두 번째 경기는 본사 A팀과 화학사업부 한상운 상무를 비롯해 농구동호회 ‘스팀팩’의 회장과 총무가 포함된 본사 B팀의 대결. 이규민 사원의 예상대로 B팀은 막강한 상대였다. 경기 초





반부터 박빙의 승부를 펼친 두 팀은 12:10으로 B팀이 우세한 가운데 전반전을 마쳤고, 최종스코어 역시 18:16 2점차로 B팀이 승리했다.

이후 본사 B팀과 IT사업부의 대결은 손에 땀을 쥐는 긴장감을 선사했다. 경기 전 IT사업부 TS팀 오성 과장은 “IT사업부는 구성원들이 대부분 엔지니어들이라서 자주 모여 운동할 기회가 없는데, 앞으로는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는 동호회를 만들어야겠다”면서 “첫 경기는 본사 A팀에 패했지만, 이번 경기는 꼭 이기겠다. 잇몸이 부셔지더라도 어금니 꼭 깨물고 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마지막 경기의 전반전은 12:8로 본사 B팀이 경기를 주도했으나 후반전은 IT사업부가 선전하며 18:18 동점으로 끝났다. 이에 두 팀은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연장전에 돌입했고 20:20 다시 동점을 기록, 끝까지 승부를 가리기 위해 연장에 연장을 거

듭했지만 양 팀 모두 불꽃 튀는 승부근성으로 결국 동점으로 경기를 종료했다. 응원하던 직원들이 “살살하자. 프로팀 경기를 보는 것 같다”고 했을 정도로 이날 마지막 경기는 그야말로 명승부였다.

(주)원익큐브 농구동호회 ‘스팀팩’ 회원들과 IT사업부 직원들을 비롯해 경기장에 직접 뛰지는 않았지만 응원을 위해 모인 직원들까지, 체육관을 꽉 채운 (주)원익큐브 직원들은 이날 끈질긴 승부근성 보다 더 끈끈한 우정을 과시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모든 경기가 종료된 후 오영신 대표이사는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 고맙고 즐겁다. 이렇게 실력이 좋은 줄 몰랐는데, 열심히 체력 관리를 해야겠다”며 “앞으로 자주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음에 또 좋은 시간을 갖자”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6 LIFE STORY 4 Musical 뮤지컬 '카르멘' 국내 초연

바다, 차지연, 류정환, 신성록 등 국내 뮤지컬계 최정상 배우들이 뭉친 뮤지컬 '카르멘'이 관객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성황리에 공연 중이다. 프랑스 소설가 프로스페르 메리메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브로드웨이의 드림팀 프랭크 와일드혼, 잭머피, 노먼알렌에 의해 새롭게 태어났다. 플라멩코, 서커스, 매직, 아크로바틱, 공중 실크 액트 등 다양한 퍼포먼스로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 뮤지컬 '카르멘'은 오는 2월 말까지 공연된다.



네 남녀의 엇갈리는 사랑과 운명 그린 새로운 콘셉트의 뮤지컬

뮤지컬 '카르멘'은 자유로운 영혼 '카르멘'을 둘러싼 네 남녀의 지독하고 강렬한 사랑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했다. 그동안 오페라나 음악극 등에서 소개된 전형적인 이야기 전개 방식에서 벗어나 '카르멘'의 캐릭터 성격과 이미지에 집중한 스토리텔링으로 완성, 카르멘과 호세, 카타리나, 가르시아 등 인물들의 심리 변화와 갈등을 보다 입체적으로 그려낸다.



또한 탄탄한 스토리와 드라마틱한 음악을 바탕으로 서커스, 매직, 아크로바틱, 공중 실크액트 등 뮤지컬 무대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고난도 퍼포먼스를 결합해 관객들에게 미학적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극 중 네 남녀의 심리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요소 중 하나인 매직 장면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술사 이은결이 매직 디렉터로 참여했으며, 마임, 저글링, 외발자전거 등 전문 퍼포먼스 배우들을 선발해 각 장면의 리얼리티와 판타지를 극대화한다.

특히 국내 관객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의 참여로 주목 받고 있는 뮤지컬 '카르멘'의 주옥 같은 넘버들은 스페인, 프랑스, 동유럽 등의 음악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자유로운 멜로디와 다채로운 감성의 선율로 채워진 뮤지컬 '카르멘'은 한국인의 정서와 잘 맞는 서정적이고 드라마틱한 멜로디에 정열적인 플라멩코 리듬이 더해진 매혹적인 분위기가 깊은 인상을 남긴다.

바다-차지연-류정환-신성록, 국내 최정상 배우들 캐스팅

이번 작품에서 눈길 한 번으로 모든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혹적인 여인 '카르멘' 역은 파워풀한 보이스로 좌종을 압도하는 바다와 매 작품마다 최고의 가창력과 연기력으로 감동을 선사해온 차지연이 더블 캐스팅 돼 각

프로스페르 메리메의 소설이

브로드웨이 드림팀을 만나다

기 다른 매력으로 열연을 펼친다.

카르멘과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는 남자 '호세' 역은 시원하고 섬세한 보이
스로 관객들을 사로잡는 국내 최고의 뮤지컬 배우 류정환과 안정된 연기력
으로 인정받고 있는 신성록이 캐스팅 돼 이성과 열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
뇌하는 '호세'로 변신했다.

또 일편단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호세의 약혼자 '카타리나' 역은
뛰어난 음악적 감수성과 청아한 목소리의 소유자 임혜영과 떠오르는 신예
이정화가 맡아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한다. 여기에 거칠고 강한 카
리스마로 카르멘에 대한 맹목적 사랑과 소유를 주장하는 '가르시아' 역에는
선 굵은 외모로 남성미 넘치는 캐릭터에 독보적인 매력을 선보이는 배우 최
수형과 에녹이 캐스팅 돼 시선을 압도한다.

바다 VS 차지연,

각기 다른 매력의 '카르멘'

열정과 관능의 '카르멘'으로 열연 중인 배우 바다와 차지연은 각기 다른 매
력으로 매회 기립박수를 받으며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다. 각자의 스타일에
맞춘 '카르멘'으로 완벽 변신한 바다와 차지연은 관객들 사이에서 일명 '바



르멘', '차르멘'으로 불리며 뜨거운 호평을
받고 있다.

섹시하고 관능적인 '카르멘' 바다는 삶과 사
랑에 온 마음을 다하는 카르멘의 정열을 고스
란히 객석에 전달한다. '호세'와 사랑을 속삭
이거나 '가르시아'에게 화를 낼 때는 손끝 등
작까지 디테일을 더한 연기로 요염한 매력과
슬픔을 배가시킨다.

배우 차지연은 도도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카
르멘'으로 변신했다. 긴 팔다리를 이용한 플라멩코 등 그동안 선보인 적 없
는 관능적인 매력을 더해 '차지연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 특히 애절한 멜로디를 바탕으로 사랑과 운명의 기로에 선 카르멘의
감성을 담은 곡 '그럴 수가 있다면'에서는 자유분방할 것 같았던 카르멘의
사랑을 섬세하고 흡인력 있는 보이스로 노래해 관객들의 눈물을 자아낸다.

바다, 차지연이 선보이는 다채로운 매력의 '카르멘', 류정환, 신성록 등 최



정상 배우들의 열연, 국내 관객들이 가장 사랑하
는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의 주옥 같은 넘버, 화
려한 퍼포먼스가 더해진 뮤지컬 '카르멘'은 2월
23일까지 LG아트센터에서 만나볼 수 있다.



뮤지컬 '카르멘'

전시장소 : LG아트센터

관람시간 : 평일 8시

토요일 3시, 7시 30분

일요일 2시, 6시 30분

(월요일 공연 없음)

관람료 : VIP석 130,000원

R석 110,000원

S석 8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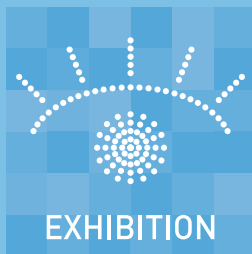
A석 60,000원

제작 : 오넬컴퍼니, 뮤지컬해본

문의 : LG아트센터(2005-0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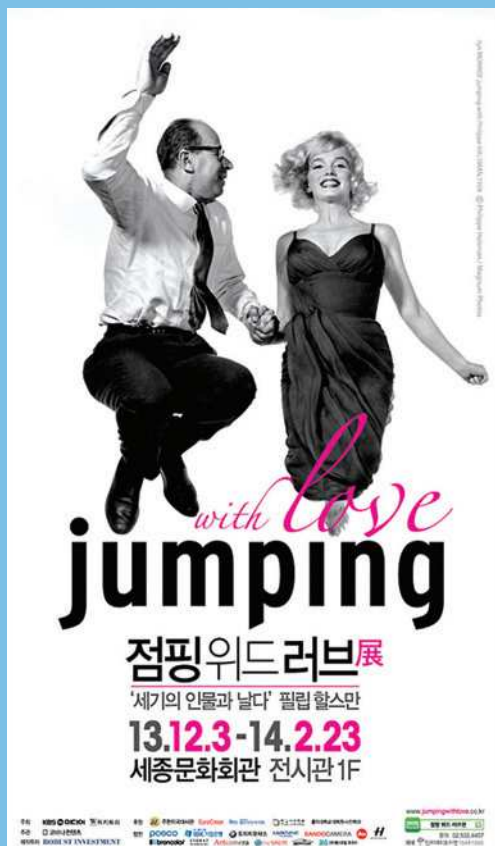
클립서비스(1577-3363)

공식 홈페이지 : www.musicalcarmen.co.kr



6 LIFE STORY 6 Exhibition '점핑 위드 러브' (Jumping with Love)전

기존 초상사진의 개념을 깨고 확장된 현대 인물사진의 시초가 된 필립 할스만(Philippe Halsman)의 전시가 국내 최초로 개최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세종문화회관 전시관 1층에서 열리고 있는 필립 할스만의 '점핑 위드 러브'전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명사들의 뛰어오르는 점핑샷을 통해 그들의 본질적인 모습과 그들이 인생을 통해 깨달은 메시지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라이프(Life)' 지 최다기록

101번의 표지를 장식한 작가 필립 할스만
필립 할스만(1906~1979)은 세계적인 잡지 '라이프(Life)'의 표지를 무려 101번이나 장식한 기록을 세운 작가로, 까다롭기로 소문난 닉슨 전 대통

령의 백악관 공식 사진가로도 활동했다. 젊은 시절 함께 걷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숨지면서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4년여간 옥살이를 한 그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늘 진실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에 그는 자신의 삶의 철학을 작업에서도 보여주고자 카메라 앞에서 유명인들의 숨은 본성과 내면을 끄집어내고자 이들에게 뛰어오를 것을 주문했다. 그는 작품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의 내면을 담아내고자 촬영 전 오랜 시간을 할애해 그들의 마음을 열려고 노력했다고. 이렇게 필립 할스만은 1940년대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오랜 세계대전과 삶에 지쳐있던 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자 유명인들의 '점핑샷' 작업을 진행했다. 한편 그는 앙리 카르띠에 브레송, 리처드 애버턴, 에른스트 하스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진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자 기획된

유명인들의 '점핑샷'

이번 '점핑 위드 러브'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통령, 영국 왕실의 윈저공, 마르크 샤갈, 오드리 헵번 등 그들의 품위와 관습을 해방시켜 본성과 내면을 끄집어내는 심리적 초상을 남긴 필립 할스만의 작품



‘세기의 인물과 날다’

필립 할스만의 ‘점핑 위드 러브’ 전

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세계적 유명인사들의 점핑샷과 그들의 인생을 통해 깨달은 메시지를 감상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전시이다.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 촬영 전 오랜 시간을 할애한 필립 할스만은 세기의 아이콘들이 체면이나 사회적 지위를 잊은 채 카메라 앞에서 펄쩍 뛰어오르게 만들었고, 그 순간을 포착한 사진들은 매우 흥미진진하다.



‘은막의 요정’ 오드리 헵번이 긴 두 다리를 양쪽으로 벌린 채 치맛자락을 펴며 허공을 향해 폴짝 뛰어올랐다. 오드리 헵번은 신나 죽겠다는 듯이 입을 한껏 벌린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한다. 사랑을 위해 왕위를 버린 영국의 윈저공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뛰어올랐고, 내성적인 닉슨 대통령도 백악관 집무실에서 작가의 요청에 흔쾌히 응했다. 당대 최고의 섹스 심벌 메릴린 먼로, 할리우드 스타 출신 모나코 왕비 그레이스 켈리도 카메라 앞에서 폴짝 뛰었다. ‘영국의 영웅’ 윈스턴 처칠의 쓸쓸한 뒷모습도 감상할 수 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영국을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은 오직 필립 할스만에게만 뒷모습 촬영을 허락했다.

이외에도 이번 전시에서는 오드리 헵번 사후 2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사진과 작가의 서랍 속에 있던 메릴린 먼로의 미공개 사진이 메릴린 먼로 사후 50주기를 맞아 국내에 처음 공개된다.



(주)코바나컨텐츠 측은 “필립 할스만의 철학이 담긴 ‘점핑 위드 러브’ 전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용기, 그리고 희망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기획 전시를 개최하게 됐다”고 전했다.

국내 셀러브리티 및

관람객도 참여

이번 ‘점핑 위드 러브’ 전에는 국내 셀러브리티 존도 마련됐다. 지난해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낙원을 그린 화가, 고갱’ 전 관람객을 대상으로 진행된 ‘당신이 보고 싶은 점핑! 셀러브리티는 누구입니까?’ 설문조사에서 선정된 국내 셀러브리티들이 참여한 것. ‘뽕겨 여왕’ 김연아 선수를 비롯해 장미란 선수, 배우 안성기 등 유명인들의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점핑샷 작품도 전시된다.

또 전시 관람 후 관람객들이 직접 필립 할스만의 점핑 프로젝트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 점핑 체험존에는 점핑샷을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와 카메라가 준비되어 있어 관람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관람객들은 점핑샷 촬영과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남기며 소중한 추억을 담아갈 수 있다.



점핑 위드 러브

(Jumping with Love)

전시장소 : 세종문화회관 전시관 1층

전시기간 : 2013년 12월3일부터

2014년 2월23일까지

주 최 : KBS미디어, 위키트리

주 관 : (주)코바나컨텐츠

문 의 : 전시본부 02-532-4407



6 LIFE STORY
8 Economy
병행수입

을 겨울 해외 고가 패딩 '캐나다구스'와 '몽클레르'의 인기가 뜨겁다. 이 열풍은 '캐몽'(캐나다구스-몽클레르)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 오죽하면 국내 영 캐주얼 브랜드들은 디자인과 로고를 유사하게 만든 일명 '코리아구스'를 출시했고, 이에 대해 캐나다구스 본사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나서는 등 심각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 해외 고가 패딩은 백화점에서 100만원이 훌쩍 넘는 금액에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병행수입 제품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오는 3월 병행수입 활성화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하자 유통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유독 국내에서 비싼

해외 유명 제품들

그동안 해외 유명 브랜드는 유독 국내에만 들어 오면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에 판매됐다. 소비자 들이 아무리 반발해도 독점 판매권을 보유한 업체와 백화점은 가격 독과점 시장을 만들어냈고, 이에 해외 유명 화장품을 비롯한 유아용품, 의류, 전자제품 등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게 판매되거나 가격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그렇다면 병행수입 제품의 가격은 어떨까. 실제로 캐나다구스의 익스페디션 다운 패딩은 국내 백화점에서 14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지만, 병행 수입 제품의 경우 80만원대의 가격에 구입할 수



병행수입 활성화,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있다. 몽클레르 모카신 패딩 역시 백화점에서 200만원대, 병행수입 제품은 이보다 40여만원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병행수입이란?

병행수입은 해외 브랜드 상품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회사가 아닌 다른 유통업체들도 직접 물건을 들여와 판매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아직까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2012년 관세청이 ‘병행수입 물품 통관인증제’를 도입하고 2013년 3월 통관인증제 참여 기준을 판매 업체로까지 확대하면서 대형 마트,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 대기업들이 참여해 병행수입 시장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병행수입 제품은 같은 제품을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이다. 하지만 관세청의 ‘병행수입 물품 통관인증제’는 조건이 까다로워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자들이 인증을 얻기가 쉽지 않고, 대다수 병행수입 업체는 여전히 종업원 5인 이하의 영세 사업자다. 이러한 이유로 병행수입 제품은 ‘진품-가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또 교환이나 환불, A/S의 절차가 복잡하거나 이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등 피해 사례도 자주 나타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대형 마트와 홈쇼핑, 오픈 마켓들은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수입자와 상표명, 원산지 등 통관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 이력제를 도입한다거나 사후 서비스 실시, 오픈 마켓의 경우 입점 업체의 제출 서류 기준 및 모니터링 강화, 직접 상품 기획자(MD)가 해외에서 구매해 판매하는 직매입 품목을 늘리는 등 강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병행수입 제품,

제대로 알고 구입하자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병행수입 제품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정품 여부에 대한 불안함을 안고 있다. 그렇다면 병행수입 제품을 믿고

구입하려면 어디서 사야 할까. 먼저, ‘병행수입 물품 통관인증제’에 따라 관세청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입하면 된다. 제품의 QR코드를 통해 정부가 정품을 보증해준 만큼 믿고 구입해도 된다. 대형 마트나 홈쇼핑 등 대기업에서 직접 수입해 판매하는 제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픈 마켓 등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쇼핑몰과 오픈 마켓에서도 직접 본사가 나서서 해외 직접 구매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믿고 구입해도 되지만, 영세 사업자가 입점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오픈 마켓에서 병행수입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의 경우 ‘가품이 확인되면 200%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식의 문구로 정품임을 강조하거나, 구매자의 이메일로 수입신고필증을 발송해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정품이라고 할 수는 없다. ‘수입신고필증’은 어디에서 수입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서류일 뿐, 정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잣대가 될 수 없다. 터무니 없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서 수입신고필증만을 강조한다면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한다.

또 오픈 마켓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위조품 보상제’ 역시 소비자가 직접 위조품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등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는 점을 명심하자. 복잡한 절차와 긴 시간을 기다리며 위조품 보상제를 이용해 위조품을 입증하기에는 실질적인 혜택도 많지 않다.



7
0

LIFE STORY
Health
미세먼지 공포



‘회색 재앙’으로 불리는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최근 미세먼지 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면서 노약자를 비롯한 호흡기 질환자들의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중국의 스모그는 1961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악을 기록하는 등 앞으로로도 대규모 석탄 사용과 늘어나는 차량 탓에 갈수록 악화될 전망이다. 이는 곧바로 우리의 건강 문제와 직결된다. 잔잔한 서풍을 타고 중국 스모그에 포함된 미세먼지가 몇 시간 만에 수도권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로 2007년 이후 5년 동안 꾸준히 대기 오염도가 개선되어 왔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도 스모그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15년 이상 지나야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스모그(smog)의 위험성

스모그는 연기(smoke)와 안개(fog)가 합쳐진 단어로, 석탄 등 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연기가 안개와 함께 시야를 가리는 현상이다. 스모그 속의 미세먼지는 크기에 따라 일반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로 나뉜다. 일반 미세먼지는 지름 10 μ g(마이크로미터, 1 μ g=1000분의 1mm) 이하의 먼지로 머리카락 굵기(70 μ g)의 10분의 1 안팎이며, 초미세먼지는 지름 2.5 μ g 이하로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도 안 된다.

황사보다 무서운

중국발(發) 스모그



스모그의 주 오염물질은 질산염, 황산염, 암모늄염 등 인위적인 오염물질로, 주로 가을과 겨울에 많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봄에 자주 발생하는 황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황사는 주 오염물질이 칼슘, 철분,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 토양 성분이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호흡기 질환에 국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스모그는 호흡기 질환은 물론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등 혈관 질환도 유발한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O)는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전문가들은 미세먼지가 폐암 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입을 모은다.

실외활동 자제, 실내 공기에도 주의를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일단 어린이와 노약자,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심한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모자와 황사방지용 마스크는 필수다.

실외활동을 자제한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실내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별 생각 없이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다간



- 황사방지용 마스크
- 비강 스프레이
- 좋은 음식 섭취

미세먼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특히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스모그의 초미세먼지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헤파(HEPA) 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를 사용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하는 것은 필수다.



7 LIFE STORY 2 Health 미세먼지 공포

미세먼지 공포 속 건강 지키기

황사방지용 마스크

식약처에서 허가 받은 황사방지용 마스크는 일반마스크와 달리 0.04~1.0 μ g 크기의 미세입자를 80%이상 걸러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꼭 황사방지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주의할 점은 황사방지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기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세탁해 재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Tip :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황사방지용 마스크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강 스프레이

외부활동을 자주할 경우 물을 많이 마시거나 입과 코를 자주 물로 헹궈주면 좋다. 입과 코를 물로 헹구는 것이 번거롭다면 비강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 공기 중에 노출되었던 손, 얼굴, 머리카락 등을 깨끗이 씻는 것은 필수다.

식품 섭취

과일이나 채소는 전용 세척제를 이용해 세척한 후 섭취하고, 전용 세척제가 없을 경우에는 잠시 물에 담근 후 흐르는 물에 30초간 씻어서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어린이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야외 조리음식은 가급적 피하도록 주의할 기을 하는 것이 좋고, 실내에서 음식을 조리할 경우에도 외부공기가 주방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닫은 후 조리한다.

좋은 음식

흔히 먼지에는 삼겹살을 먹으면 효과가 있다는 속설이 있지만, 삼겹살이 아닌 돼지고기의 붉은 살코기를 먹는 것이 좋다.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붉은 살코기, 굴, 달걀 노른자 등에는 중금속을 해독하는 아연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미역 등 해조류는 다이옥신, 카드뮴, 납 등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고, 녹차 역시 중금속이 몸 안에 쌓이는 것을 억제한다.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에는 배, 도라지, 생강차 등을 자주 섭취하면 기관지 건강에 도움이 된다.



본 호 가 나 오 기 까 지
함 께 하 신 원 익 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익사보 2014년 신년호 원익인 통권 37호

발행인 이재현

발행일 2014년 01월

발행처 원익

본 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12번지
원익빌딩 9층

디자인 비즈커뮤니케이션즈 02.517.1901

사보 '원익'은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원익 고건호
이태율
문화체험 동호회
임수진

(주)원익큐엔씨 도현수

신원종합개발 (주) 현승훈
최정미
문성준

(주)원익아이피에스 차유리
윤영구

(주)원익머트리얼즈 이수정
남영주

원익투자파트너스 (주) 정지윤
차은주

(주)위닉스 안희태
장용화

(주)원익큐브 김태경
농구동호회 '스팀 팩'

(주)씨엠에스랩 이희연
오삼열

기획조정실 김동철
윤지영



Cell Fusion C
CELL MEMBRANE STRUCTURE

잠들어 있는 피부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셀퓨전씨 EGF 함유 재생 크림

생명력의 근원인 EGF성분이 스트레스 받은 피부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어드립니다.

탄력 증대 | 에너지 부여 | 피부장벽 강화 | 영양 공급



Laser Rejuvenation 30ml
레이저 리juven레이션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외부자극으로부터 스트레스 받은 피부에 EGF, 아데노신 성분이 피부 내 깊숙이 침투되어
피부장벽 강화는 물론 주름 개선, 탄력 증대 등 피부 정상화에 도움을 줍니다.

레이저 시술 후 1,127만명이 사용한 안전성과 대한민국 4,000여 병원이 선택한 전문성을 보유한
셀퓨전씨는 세계 42개국에 유통하고 있는 정통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입니다.

CMS

(주)씨엠에스랩 www.cms-lab.co.kr
셀퓨전씨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더마톨로지컬 스킨케어입니다.

www.CellFusionC.com

TEL. 031.8038.9400

FAX. 031.8038.9410